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8
vol.316 **04**



커버스토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공연장 나들이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 내 안에 너 있다'

유럽 박물관 기행
프랑크푸르트 슈테델 미술관



Violoniste

LAURENT

세계가 열광한 프랑스 최고의 바이올니스트, 로랑 코르샤

KORCIA

& Pianiste Aeyoung Byun

불의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내한공연
& 변애영

Violoniste LAURENT KORCIA & Aeyoung Byun

Violoniste LAURENT KORCIA & Aeyoung Byun

2018.4.20. FRI. 7:30 PM

2018.4.22. SUN. 5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OONG IN 중인문화재단

WCN

우리들병원

양민병원

SK

SAM WOO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
ticket.interpark.com

1544-1555

문의

02-2183-1292 www.wocu.net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가족 음악회

꾸러기 음악회

2018. 5. 5 (토) 오후 2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강 신 태 동요 강 소 민 · 햇살나무 중창단
연주 서울뉴데이심포니오케스트라



주
최



문의
·
예매



051)607-6000 www.bscc.or.kr

1544-1555 www.ticketpark.com

티
켓

전석 2만원

전 연령 입장가능(1인 1매 티켓소지)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재개관 기념 첫 번째 기획공연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 시리즈 I

말러, 다시 태어나다

Richard Wagner
리하르트 바그너

Rienzi Overture
리엔치 서곡

Gustav Mahler
구스타프 말러

Symphony No.1 "Titan"
교향곡 1번 "거인"



예술감독 | 김원명



지휘 | 임성혁

2018. 5.18.(금)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BRPO)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을숙도문화회관 |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1만원 |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 문의 | 051)220-5812 |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기획 | 이성섭 | 무대감독 | 이순재 | 조명감독 | 박병주 | 음향감독 | 서종철

부산시립합창단의
#맛스타그램
음식으로 맛보는 합창



2018. 4. 5(목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공연 종료 후 로비에서 **칸타타** 커피를 증정합니다.

MENU

- | | | | |
|--|--|---|--|
| <p>* 합창 - 요즘 생각나는 어릴때 먹던 그 음식</p> <p> 국수나 한 그릇 하러 가세
김순진 작사/함성훈 작곡/이병직 편곡</p> <p> 중화반점
이영훈 작곡/최석태 편곡</p> <p> 어머니와 고등어
김장완 작사,작곡/문지은 편곡</p> | <p>* 여성중창 - 때론 우아하게</p> <p> 와인과 매너
탁계석 작사/정덕기 작곡</p> <p> 벚꽃 팝콘
김기연 작사/정보형 작곡</p> | <p>* 남성중창 - 막걸리에 반한 나</p> <p> 꽃게
심용문 작사/정애연 작곡</p> <p> 막걸리송
탁계석 작사/안현정 작곡</p> | <p>* 합창 - 분식점에서 들던 그 노래</p> <p> 팔빙수
윤종신 작사/이규효 작곡</p> <p> 김밥
김밥 작사/최준영 작곡</p> <p> 카레
이영준 작사/Minu.DK 작곡</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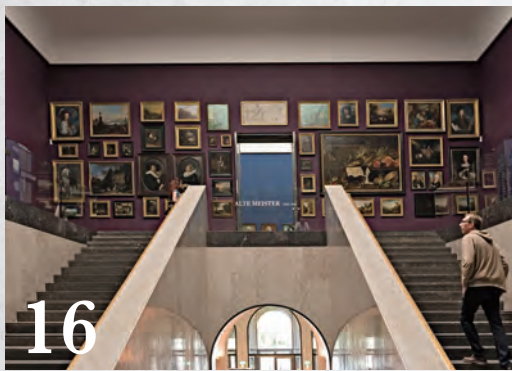
#연주회 #성공적 #대애박 #배고픔주의 #공연후커피증정 #부산시립합창단 #밥은먹고다녀냐? #목요미식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전진세프

관람료 : 균일 10,000원

합인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다자녀가정, 임산부, 의사자 및 유족, 의상자 및 직계가족, 모범납세자
30% 단체(30명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문화예술인페스 소지자, 대학생(학생증소지자)
20% 단체(20명 이상), 외국인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6(시립합창단), 607-6074~5(정기회원)

SPECIAL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공연장 나들이
부산문화회관에서 만나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CULTURE +
유럽 박물관 기행
시민이 만든 최초의 미술관,
프랑크푸르트 슈테델 미술관



VIEW +
리뷰
유럽 신인 오페라 갈라 콘서트
부산시립극단 제31회 정기공연 '맥베스'



NEWS +
부산문화회관 소식

contents

SPECIAL +

- 08 **커버스토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공연장 나들이
부산문화회관에서 만나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

CULTURE +

- 10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4월 공연 캘린더**
- 14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Così fan tutte), 내 안에 너 있다'
- 16 **유럽 박물관 기행**
시민이 만든 최초의 미술관, 프랑크푸르트 슈테델 미술관
- 20 **테마가 있는 여행**
2018 경주 수학여행 다시 가기
-

VIEW +

- 27 **프리뷰**
- 34 **문화가화제**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2018 제35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2018 생활문화 네트워크 페스티벌 '다가치 놀자'
- 38 **리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

NEWS +

- 53 **새로 나온 책**
-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 58 **SNS 서포터즈 공연관람기**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18년 4월호 통권 316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8년 3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공연장 나들이

부산문화회관에서 만나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지난해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부산문화회관이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관한 365일 어린이 관객을 위한 어린이전용극장에서부터 미취학 아동을 위한 눈높이 무용공연 '춤추는 동화', 그리고 매년 5월이면 열리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가족 음악회,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까지 장르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관객들을 맞고 있다.

18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p> <p>바람이 부는 날도 맑아도 바람이 불어 날아가 버려버려!</p> <p>채림형 전래동화 뮤지컬</p> <h3>뚝뚝하니 흥!</h3> <p>제 4회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아동청소년부문 아시메지상 수상작</p> <p>2018.03.16(토) ~ 05.31(목) 오전 11시</p> <p>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p>	<p>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p> <p>미취학 아동을 위한</p> <p>2018 춤추는 동화</p> <p>~동화 읽어봐~</p> <h3>토끼와 거북이</h3> <p>2018. 4. 3(화) ~ 13(화)</p> <p>오전 11시 (토,일 제외)</p> <p>부산시민회관 소극장</p>	<p>2018 부산시립극단 어린이연극체험 페스티벌</p> <p>2018. 5. 4.(금)~5.(토)</p> <p>오전 11시 ~ 오후 5시</p> <p>부산시립극단 정아동, 부산문화회관 남 아강</p> <table border="1"> <tr> <th>공연시간</th> <th>티켓</th> <th>공연장</th> </tr> <tr> <td>5월 4일 (금) 11시</td> <td>일반 10,000원 / 어린이 5,000원</td> <td>부산시립극단 정아동</td> </tr> <tr> <td>5월 5일 (토) 11시</td> <td>일반 10,000원 / 어린이 5,000원</td> <td>부산문화회관 남 아강</td> </tr> </table>	공연시간	티켓	공연장	5월 4일 (금) 11시	일반 10,000원 / 어린이 5,000원	부산시립극단 정아동	5월 5일 (토) 11시	일반 10,000원 / 어린이 5,000원	부산문화회관 남 아강	<p>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가족 음악회</p> <h3>꾸러기 음악회</h3> <p>2018. 5. 5(토) 오후 2시</p> <p>부산문화회관 대극장</p> <p>내 안 신재 - 피리소연 황성나눔 출판단 *이 세를부여할날나오게스트리</p>
공연시간	티켓	공연장										
5월 4일 (금) 11시	일반 10,000원 / 어린이 5,000원	부산시립극단 정아동										
5월 5일 (토) 11시	일반 10,000원 / 어린이 5,000원	부산문화회관 남 아강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3월 16일(금)~5월 31일(목) 오전 11:00(월요일 공연 없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어린이 관객을 위한 특화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랑채극장은 지난해 9월 개관기념공연으로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리-세 가지 안전 약속’을 넘 달간 장기상연하면서 어린이전용극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3월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어린이전용극장의 두 번째 작품은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지난 2015년 제4회 서울뮤지컬 페스티벌 아동청소년부문에서 아시테지상을 수상한 ‘뚝딱하니 어흥!’은 ‘호랑이와 꽃감’, ‘호랑이 형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 3가지 전래동화를 소재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한편 극 중 교훈을 통해 용기와 협력, 용서와 관용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도깨비 마을의 대장 ‘뚝딱하니’가 꼬마 도깨비인 관객들과 함께 도깨비 마을에 숨어들어온 호랑이를 잡으러 다닌다는 내용으로, 어린이 관객들이 직접 만든 도깨비 방망이를 통해 나쁜 호랑이를 벌 주기도 하며 위기에 처한 오누이를 도와주는 등 배우들과 함께 극을 직접 이끌어 나간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2018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5월 4일(금)~5일(토) 오전 11:00~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및 야외광장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부산시립극단이 지난 2016년부터 마련해오고 있는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은 올해도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 4일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및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부산시립극단의 어린이를 위한 맞춤 페스티벌 ‘2018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은 어린이극 ‘꼬마 도깨비 깨비의 옛날 옛날에 II’를 비롯해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연주회, 부산시립무용단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동요나라’ 등 다채로운 무대에서부터 다양한 체험행사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매년 해가 갈수록 참가 가족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야외광장에서 빼에로 풍선아트, 악기 만들기, 전통금관 만들기, 가면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8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4월 3일(화)~13일(금) 오전 11:00(주말 공연 없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부산시립무용단의 눈높이 프로그램 ‘춤추는 동화’는 4월 3일부터 13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극적인 이야기 구성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춤사위로 풀어내는 ‘춤추는 동화’는 매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안무로 공연 때마다 매진사세를 낚고 있다. 올해 ‘춤추는 동화’는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재미있는 춤극으로 풀어낸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용궁에서’, ‘토끼를 찾아서~~’, ‘날 잡아봐라~~’, ‘경주하기’, ‘용왕과 거북이의 만남’ 등 총 5가지 에피소드로 구성, 관객인 어린이들이 함께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 예술감독 / 김용철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가족 음악회
꾸러기음악회

5월 5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열리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 ‘꾸러기음악회’는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 클래식 가족음악회로,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이 클래식에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쾌하면서도 밝은 곡들을 들려준다. 특히 공연 시작 전 진행되는 ‘악기놀이터’를 통해서도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를 전시, 직접 악기를 만져보며 배울 수 있으며, ‘악기야 놀자’에서는 금관악기 공연팀의 악기를 직접 불어보며 연주 체험을 해볼 수도 있다. 지휘자 강신태가 지휘하는 서울뉴데이스ymphonic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펼쳐지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주제의 ‘경기병 서곡’,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등 누구에게나 친숙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다함께 동요 부르기, 다함께 왈츠, 강강술춤 추기 등 음악을 온 몸으로 즐기고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04

2018 APR

부산문화회관
공연일정

SUN	MON	TUE
<p>1</p> <p>중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익스트림 댄스 코메디 '브레이크 아웃' 14:00, 18:00 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p>	<p>3</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정경화 초청 리사이틀' 19:30 5만원·3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부산은파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무료/문화공간(주)(010-3839-1084)</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8</p> <p>중 윈스트링챔버 협주곡의 밤 시리즈 II 19:00 윈스트링챔버(010-4550-9961)</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9</p>	<p>10</p> <p>대 사랑나눔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아! 대한민국 희망을 노래하다' 19:30 초대/사랑나눔합창단(010-3038-7191)</p> <p>캠 임재홍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전석 2만원 아트뱅크코레아(442-1941)</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5</p> <p>대 선원 2018 월드투어 14:00 18만원·15만원·11만원·8만원 선원닷컴(1544-8808)</p> <p>중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세진 '우리안치' 18:0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6</p> <p>중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세진 '우리안치' 19:3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17</p> <p>캠 소프라노 허영은 독창회 19:30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2</p> <p>중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거룩한 양복' 18:0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3</p>	<p>24</p> <p>대 부산네오펠하모닉오케스트라 제49회 정기연주회 'Tchaikovsky & Dvorak' 19:30 5만원·3만원·2만원 부산네오펠(010-2323-6589)</p> <p>중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이그라 '애꿎다' 19:3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9</p> <p>대 롯데시 서거 150주년 기념 롯데시 오페라 축제 '부산 성악가 페스티벌' 19:30 15만원·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p> <p>중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연극 '정과정' 16:00 전석 2만원/극단 바문사(554-8209)</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30</p>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 대** 대극장 **중** 중극장
- 캠** 챔버홀 **아** 야외광장
- 사** 사랑채극장

WED	THU	FRI	SAT
4	5	6	7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음식으로 맛보는 합창'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15~6)</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사제간의 음악여행 17:00 전석 2만원/아트뱅크크레아(442-1941)</p> <p>행 바리톤 이응광 리사이틀 with 피아니스트 한상일 17:00 전석 5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11	12	13	14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9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IV '일탈 혹은 일상'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개막식 19:00, 극단 연 '그림자의 시간' 19:3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행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특별 기획공연 '3인 음악회' 19:30 전석 1만원 아미티에 성악연구회(010-2330-0994)</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연 '그림자의 시간' 19:3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선원 2018 월드투어 19:30 18만원·15만원·11만원·8만원 선원닷컴(544-8808)</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18	19	20	21
<p>중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누리에 '그림자의 시간' 19:3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위한 로비음악회 18:00 *1층 로비 초대/(재)부산문화회관(607-6013, 6006)</p> <p>중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누리에 '그림자의 시간' 19:3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불의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내한공연 with 변애영 19:30 R석 12만원·S석 9만원·A석 6만원·B석 3만원 (사)송인문화재단(623-3331, 010-9991-7538)</p> <p>행 소프라노 엄남이 제8회 독창회 19:30 초대/우리아트(920-9545)</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VII 17:00 4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거룩한 양복' 18:0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5	26	27	28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3 '오페라 이야기 II' 11:00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중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이그라 '애꿎다' 19:3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96회 정기연주회 國樂, 4월에 부르는 봄의 노래'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행 류찬미 피아노 독주회 19:30 전석 1만원/류찬미(010-5103-7322)</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한울림합창단 제40회 정기연주회 20:00 초대/한울림합창단(010-6252-0019)</p> <p>중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바문사 '정과정' 19:3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대 더울림콰이어 창단연주회 '울림을 노래하다' 19:00 초대/우리아트(920-9545)</p> <p>중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바문사 '정과정' 18:0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행 이요한 귀곡 피아노 독주회 19:00 2만원·1만원/이요한(010-7477-7041)</p> <p>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대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1월 1일(월)-4월 8일(일)
 입장료 : 성인(만 19세-64세) 1만 3천원
 청소년(중·고교생) 1만 1천원
 어린이(48개월-초등학교) 9천원
 45개월 미만 무료(증빙서류 지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070-7542-8531)



제28회 국제서화에술전

4월 22일(일)-4월 24일(화) 전시실
 문의 : 국제교류서도협회(010-4448-9553)

제12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

4월 24일(화)-4월 28일(토)
 문의 : (사)국민예술협회 부산광역시지회
 (245-2521, 010-4925-8500)

04

2018 APR

부산시민회관
공연일정

SUN	MON	TUE
1	2	3
<p>소 가족뮤지컬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 11:00, 14:00 전석 1만원 온누리(1661-6702)</p>		<p>소 부산시립무용단 2018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8	9	10
<p>대 ◆ 어린이 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 앵글공연 11:00, 14:00, 16:30 5만 5천원·4만 4천원 이끌림 부산(1644-5764)</p>	<p>소 부산시립무용단 2018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소 부산시립무용단 2018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15	16	17
<p>대 제32회 청소년 무용경연대회 10:00 초대 (사)부산무용협회(632-5116)</p>		<p>대 뮤지컬 '내 친구의 식품알레르기 이해하기' 10:30 초대/부산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60-3297)</p>
22	23	24
<p>대 제96회 전국무용예술제 10:00 초대 (사)중앙무용문화연구원(02-866-8880)</p> <p>소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이야기 '막심 그루같이' 18:0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이야기 '막심 그루같이' 19:3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29	30	
<p>대 EBS 가족뮤지컬 '번개맨의 비밀 The Original' 11:00, 14:00, 16:30 5만 5천원·4만 4천원 (주)힘컨텐츠(1544-1555)</p> <p>소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자유바다 '춤추는 소나무' 폐막식 및 시상식 18:0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 대** 대극장
- 소** 소극장
- 야** 야외광장

WED	THU	FRI	SAT
4	5	6	7
<p>소 부산시립무용단 2018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소 부산시립무용단 2018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소 부산시립무용단 2018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아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 시민뜨락축제' 12:20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대 어린이 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 앵글공연 11:00, 14:00, 16:30 5만 5천원·4만 4천원 이콜림 부산(1644-5764)</p>
11	12	13	14
<p>소 부산시립무용단 2018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소 부산시립무용단 2018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소 부산시립무용단 2018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아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 시민뜨락축제' 12:02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대 코미디 빅 콘서트 16:00, 19:00 7만 7천원·6만 6천원 (사)부산문화예술사랑(1600-1602)</p> <p>소 2018년 모리문화예술원 두드림 콘서트 14:30 전석 2천원 모리문화예술원(010-3064-6454)</p>
18	19	20	21
		<p>아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 시민뜨락축제' 12:20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대 다비치 콘서트 19:00 12만 1천원·11만원·9만 9천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p>
25	26	27	28
<p>대 경현예술단 창단 10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한마당 14:00 무료/(사)경현사니어센터(819-0660)</p> <p>소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시나위 '빨' 19:3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시나위 '빨' 19:3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아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 시민뜨락축제' 12:20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대 EBS 가족뮤지컬 '번개맨의 비밀 The Original' 11:00, 14:00, 16:30 5만 5천원·4만 4천원 (주)퀵텐츠(1544-1555)</p> <p>소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자유바다 '춤추는 소나무' 18:00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전시실</p> <p>한국 전통도예가 도천 서광윤 도예전 3월 26일(월)-4월 2일(월) 1층 전시실 문의 : 백문영 010-4703-2205</p> <p>이선애 개인전 4월 1일(일)-4월 8일(일) 2층 전시실 문의 : 이선애 010-9250-8358</p>	<p>꽃 예술전 '연약의 축복' 4월 3일(화)-4월 7일(토) 1층 전시실 문의 : 유은선 010-4550-4825</p> <p>삼여수목화원전 4월 14일(토)-4월 17일(화) 1, 2층 전시실 문의 : 이태재 622-3373</p>	<p>한국경석회 32회 회원전 4월 18일(수)-4월 21일(토) 1층 전시실 문의 : 윤두천 011-570-1688</p> <p>민화는 우리의 삶, 꿈, 복이다 4월 29일(일)-5월 5일(토) 1층 전시실 문의 : 전정혜 010-4703-2205</p>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COSI FAN TUTTE), 내 안에 너 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Out of sight, out of mind)’.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면, 아니 이성 친구를 사귀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음직한 말이다. 특히 군대에 가자 여자친구가 고무 신 거꾸로 신는 이야기는 2백여 년 전 이미 모차르트의 작품에 아주 자세하게 그 과정과 결말이 나와 있다.





오페라 '여자는 다 그래'라는 작품은 제목부터 참 재미있다. 'così=그래, 이렇게, 그대로', 'fan=~하다, fare 동사의 3인칭 복수형, 영어의 do 동사', 'tutte=모두의, 원형 tutto에서 여성복수형으로 뒤에 e가 붙은 형태, 남성형은 tutti이고 남성, 여성 모두 역시 tutti'로서 약간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사실은 여성을 꼬집어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귀족계급을 교묘하게 묘사하며 계몽주의 사상을 넣음으로써 '인간은 모두 다 같다'라는 대전제, 즉 계급사회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불합리한 것에 대해 얘기한다. 특히 하녀인 데스피나가 '왜 내가 만든 초콜릿을 내가 먹지 못하나?'라고 푸념하면서 계급사회뿐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에 의해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상을 말하고 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 속에는 자신의 연인만은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고 자기만을 사랑할 것이라 믿는 두 남자가 있다. 해군장교 페란도(테너)와 굴리엘모(바리톤)이다. 그들은 로열패밀리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이다. 이들 앞에 이들의 사랑을 시험해 보자고 유혹하는 밋지 않은 악역이 등장한다. 그들보다 훨씬 나이와 경험이 많은 철학자 알폰소(베이스)는 '인생 뭐 있어? 살아보니 인간은 다 똑같고 그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을...' 하며 여유있게 젊은이들의 멘토이자 끈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늙은이나 선생님의 은어-로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열기왕성한 모습을 보고 자조적인 견지에서 여유있게 그들과 내기까지 하며 그들의 경제력을 탈취하고자 한다. '너희 둘의 애인들

이 파병 간 사이, 그것도 하루 안에 넘어갈 것'이라며 페란도와 굴리엘모를 흥분시킨 후 자신의 각본대로 내기 드라마를 만들어 낸다. 아주 이탈리아답다. 이런 남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내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이탈리아 북동부 페라라 출신의 두 여인, 피오르딜리자와 도라벨라, 그리고 알폰소와 결탁하여 이런 상황을 즐기며 놀려대는 귀여운 하녀 데스피나. 항구의 이별을 뒤로 한 채 기다림의 맹세를 한 두 커플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렇게도 믿었던만 변장한 다른 애인들의 집요한 구애에 점점 무너져가는 여인들의 사랑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알폰소의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나, 결국에는 웃음과 반성으로 모든 일들을 덮고 과거는 잊고 다시 새 출발하자는 것이 이 오페라의 주된 내용이다.

나는 몇 년 전 이 작품을 연출하면서 엇갈려가는 사랑의 작대기가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 한 구석이 뜨끔해 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인간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 늘 흘러가기에 감정의 흐름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무대에 많은 의미와 비밀들을 숨겨 놓으며 이전에 다른 프로덕션에서 했던 것은 모두 다 지우고, 새롭게 다시 구성해보기로 했다. 극적으로도 서로 다른 외모와 성격의 이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통해 다시금 자신들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깨닫게 하는 연출을 시도했다.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변화해도 영원히 변치 않을 테마는 '사랑'이다. 이것을 모차르트 또한 알고 있었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 같다. '눈에서 멀어져도,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건 왜일까?

시민이 만든 최초의 미술관

프랑크푸르트 슈테델 미술관

STÄDEL MUSEUM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 여행자들에게 여전히 낯선 곳이다. 하지만 최근 독일은 이미 유럽여행을 경험한 많은 여행자들에게 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이미지와 저렴한 물가, 정확한 교통편 그리고 비교적 잘 통용되는 영어 등(남부 유럽에서 영어를 잘 쓰는 현지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가까운 미래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여행지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도 독일을 참 좋아하는 편이다. 독일에 가면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보다 마음이 편한 편인데 그것은 변수가 적은 환경과 함께 관광업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지 여행자들에게 과도한 관심이나 호객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나 맛있고 저렴한 맥주와 소시지는 보너스.) 오늘은 서유럽의 관문이자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이며 대문호 괴테의 고향 프랑크푸르트(Frankfurt)의 슈테델 미술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황제의 도시 프랑크푸르트

예전부터 게르만 민족은 하나의 단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 살았다. 게르만 민족은 이후 서유럽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마뉴(Charlemagne, AD ?~814)에 의해 일시적으로 통일되었으나 이내 다시 분열되었고 1871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되기 전까지 서양사에서는 이 독일연맹체를 신성로마제국이라고 불렀다. 수많은 제후들 가운데 7명의 강력한 제후들은 투표를 통해 독일연맹체의 황제를 선출하였고 그 황제를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칭했다. 황제는 기존에 다스리던 자신의 영토뿐만 아니라 독일연맹체 가운데 황제직할도시를 다스렸는데 프랑크푸르트 역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프랑크푸르트는 스위스에서 네덜란드까지 이르는 라인 강의 큰 지류인 마인 강을 끼고 형성되었다. 원래 프랑크푸르트의 전체 이름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으로, 예전 프랑크 민족이 마인 강의 이곳을 건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강을 젖줄로 수많은 건물들(특히 주변에 박물관이 무려 26개가 있다)이 형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할 슈테델 미술관이다.





ALTE MEISTER 1300-1800



1. 슈테델 미술관 전경 2. 넓은 전시실과 쾌적한 환경의 미술관 3. 플랑드르 화가의 섬세한 표현 4. '눈이 먼 삼손'(렘브란트, 1636) 5. '눈이 먼 삼손' 중 찰나의 순간을 표현한 렘브란트
6. 고풍답게 가장 사랑받는 그림 가운데 하나인 티슈바인의 '캄파나의 고펀'를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 7. 루벤스가 로마 유학 시절 보았던 조각 8. 루벤스의 스케치

설립자 요한 프리드리히 슈테델(Johann Friedrich Städel, 1728~1816)

유럽 대부분의 미술관들은 왕이나 권력자의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독일의 슈테델 미술관은 한 개인의 기부로 인해 설립된 미술관이다. 설립자 요한 프리드리히 슈테델은 1728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프랑스 땅인 스트라스부르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와 무역에 종사했던 그의 아버지를 따라 가문의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처음에는 주로 향신료 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은행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큰돈을 벌었다고 한다. 슈테델 미술관은 설립자가 1770년부터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등을 돌며 수집한 700여 점의 개인 소장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던 그의 유언에 따라 1815년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2012년에는 독일 최고의 미술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700년 미술사를 담고 있는 미술관

필자는 유럽 대부분의 미술관을 다녔지만 적당한 규모와 함께 고전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미술사를 잘 정리한 미술관을 경험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붐비지 않는 쾌적한 환경과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9시까지 문을 여니 여행자들에게는 최고의 장소가 아닐까 한다. 미술관은 현대미술이 있는 지하와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시기인 2층부터 내려오면서 시대별로 관람하는 것을 권한다. 미술관의 규모도 생각보다 큰 편인데 14세기 초반 작품부터 후기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19~20세기 작품까지 7세기에 걸친 회화 2,700점을 비롯하여 10만 점에 이르는 드로잉화와 판화, 약 600점의 조각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미술관 안의 도서관은 10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약 400종의 정기 간행물을 매년 출판한다.



플랑드르의 대가들

15세기부터 플랑드르 지역은 예술을 사랑하는 지도층과 상인들로 인해 문화의 융성을 이루었다. 특히 이 지역은 습한 날씨로 인해 일찍부터 유회기법이 발전하였고 빨리 마르지 않는 유화의 특성상 정밀한 그림을 그리기에 용의했다. 특히 현실적인 상인들이 주 고객이었던 플랑드르 지역은 이탈리아와 달리 성화를 그릴 때 자신들의 집이 주 배경이 되었으며 정밀한 인물의 표현과 배경의 표현은 이후 초상화와 풍경화로 발전되어 갔다. 실용적이었던 플랑드르 지역의 사람들은 큰 그림보다 작지만 가치 있는 그림을 선호했는데 털 하나까지 섬세하게 그려낸 그들의 기술력을 보면 지금도 놀랍게만 느껴진다. 그리고 16세기 후반이 되면 플랑드르 지역은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 가톨릭 중심의 남부지역과 신교 중심의 북부지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회화사에서는 남부 벨기에 지역에서 활약했던 루벤스와 북부 네덜란드 지역에서 활약했던 렘브란트로 나뉘게 된다. 슈테델 미술관에서는 렘브란트 초기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눈이 먼 삼손을 만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빛과 어둠의 대비와 찰나의 순간을 표현하기 원했던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통해 적국의 여인이었던 데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는 비밀을 누설한 삼손이 이후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적군에게 포박당해 눈이 짙히는 극적인 순간을 표현했다. 이 작품에서 빛과 어둠의 대비, 찰나의 순간과 함께 한 화면에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되는 회화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렘브란트의 노력이다. 즉 이 작품 속 인물들이 하는 행동들은 모두 같은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한 화면 속에 모든 인물들을 동시에 그려 넣음으로 감상자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인물들을 감상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특정 순간만을 표현해야 되는 회화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작가의 도전정신을 느끼게 해준다. (렘브란트는 알면 알수록 참 멋진 화가이다.)

살아서 역등하는 미술관

최근 필자가 방문한 슈테델 미술관에서는 루벤스 특별전을 하고 있었다. 이미 여러 번 이곳을 방문했지만 방문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특별전을 여는 모습을 보며 살아있는 미술관이 무엇인지 느끼게 된다. 이번 루벤스 특별전은 화가 루벤스가 고전을 공부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으로 어떻게 옮겼는지를 보여줬는데 그저 화가 이름만 가지고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전시가 아니라 특별한 테마가 있어서 그들의 기획력에 더 놀라운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원래 미술관 건물은 1878년에 건축되었지만 2차 대전 당시 공습으로 무너져 1963년 다시 복원했다. 당시 복원 비용은 약 5천 2백만 유로로 지금 환율로 약 680억 원의 거금이었는데 그 가운데 절반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었고 절반은 개인의 후원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 시민이 만든 유럽 최초의 미술관을 현재에도 여전히 시민의 손으로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며 슈테델 미술관이 왜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술관이 되었으며 왜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미술관이 될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우리 부산에도 이렇게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서 문화가 역등하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 경주 수학여행 다시 가기

경주

지난 2006년 3월 '경주 수학여행 다시 가기'로 첫 발을 내딛은 '정기회원 테마 여행'이 올해 3월로 12주년을 맞았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마다 진행됐던 정기 회원 테마여행은 그동안 여행의 설렘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색다른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회원 가족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올해 3월에도 어김없이 정기회원들과 경주로 추억의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3월 테마여행이 펼쳐졌던 지난 3월 9일, 때아닌 눈 소식에 봄여행을 기대했던 아쉬움도 잠시,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 떠나는 여행에 회원들의 얼굴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한 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제대로 실천했던 경주 최부자의 고택으로 유명한 교촌마을. 어제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아 하얗게 덮여있는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매년 경주여행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유산해설가 최승욱 씨가 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교촌마을은 신라 신문왕 2년(682년), 한반도 최초의 국립대학인 국학이 있던 곳으로, 신라시대의 국학은 고려시대의 향학을 거쳐 조선시대 향교로 계속 이어졌다. 마을의 이름이 ‘교동’, ‘교촌’, ‘교리’ 등으로 불린 것은 모두 이곳에 향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향교와 최씨 고택을 중심으로 전통한옥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인근에 첨성대, 월성, 계림 등 중요한 신라유적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 신라 문화 속의 조선문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요민속자료 제27호로 지정된 경주 최씨 고택은 12대 동안 만석지기 재산을 지켰고 학문에도 힘써 9대에 걸쳐 진사(進士)를 배출한 경주 최부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특히 최부자집에서는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재산은 만 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객(過客)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최씨 가문 며느리

들은 시집은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이 대대로 전해지면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교촌마을에는 원효대사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은 신라 요석공주가 살던 요석궁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원효가 요석궁에 들어가기 위해 건넜다는 다리가 바로 사적 457호로 지정된 월정교로, 통일신라시대 서라벌에 세워졌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크고 오래된 목조교량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로 된 다리는 사라지고 다리 바닥을 지탱하고 있던 석조물만 일부 남아있었으나 지난 2008년 복원사업을 시작한 후 최근 공사가 마무리되어 지난 2월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면서 경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탄생설화가 서려 있는 계림과 월정교를 모두 돌아본 후 경주의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에서 콩나물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쳤다. 오후 일정은 경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유적지인 불국사에서 시작했다. 불국사에 도착하자 오전 내내 확장하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면서 때아닌 진눈깨비가 쏟아진다. 부산에서는 보기 힘든 눈에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회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토함산 중턱의 암자 석굴암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는 불국정토를 속세에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통일신라의





꿈을 드러내는 건축물로, 이름인 불국사는 불국정토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사찰인 황룡사가 거대한 규모로 유명하다면, 불국사는 치밀한 구성의 완성도와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석불사(석굴암)를 만들었고 현생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 불국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불국사는 신라인이 염원한 이상의 불국토를 세 갈래로 구현한 것으로, '법화경'에 근거한 석가의 사바세계는 대웅전으로, '무량수경'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극락전으로, 그리고 '법화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 세계는 비로전으로 대표된다. 석단 위에 청운교·백운교, 칠보교·연화교라는 두 쌍의 다리를 놓았으며, 대웅전 앞에는, 그 유명한 석가탑과 다보탑이 자리하고 있다.

불국사를 답사하는 동안 계속 내리던 진눈깨비도 한풀 꺾이면서 정기회원 가족들은 다음 답사장소인 괴릉으로 자리를 옮겼다. 괴릉은 신라 38대 국왕인 원성왕 김경신의 능으로, 입구에 도착하자 동서남북을 지키는 4마리의 사자상과 무인석상이 먼저 관람객들을 반긴다. 사자는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성스러운 동물로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호랑이와 양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왕릉을 지키는 성스런 동물인 사자상은 동서남북 각각의 방향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으며 무섭기 보다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담고 있어 능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무인석상은 얼굴생김이나 표정, 수염 등을 보아 동양인이거나보다는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 당시 신라인들의 국제적인 교역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괴릉에는 무덤 아래, 무덤의 보호를 위한 돌레석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돌레석에는 12지상이 조각되어 있다. 12지상의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는 말(午)을 기준으로 모두 말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 말은 항상 정남쪽에 위치해 있어 12지상이 있는 왕릉에서 말을 찾으면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다.

괴릉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경주여행을 모두 마친 회원가족들은 짧은 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년으로 미루고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하동 오감여행



일정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하동 도착, 평사리 최참판댁, 평사리문학관, 골목길갤러리 탐방
- 12:30 중식
- 13:30 매암차문화박물관 탐방 및 체험
- 16:00 부산으로 출발

5.11일

맑고 푸른 섬진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청정 하동으로 떠나는 봄 여행.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 평사리 최참판댁, 하동 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차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매암차문화박물관에서 오감여행을 즐긴다.

04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 김명숙(해운대구 센텀중앙로)
- 김은경(남구 유엔로)
- 김진안(부산진구 전포대로)
- 김창호(남구 석포로)
- 박정식(남구 황령대로)
- 서은순(남구 진남로)
- 윤지선(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정은정(부산진구 당감로)
- 채문식(남구 석포로)
- 하필성(남구 황령대로)

● 기존 회원

- 김정순(남구 수영로)
- 안영수(금정구 중앙대로)
- 오현주(수영구 광안해변로)
- 우영선(사하구 다대낙조2길)
- 유현영(사하구 괴정로)
- 이효정(연제구 반송로)
- 정례수(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 정신자(남구 분포로)
- 조선미(해운대구 대천로)
- 천인주(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영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전화·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미취학 아동을 위한
2018 춤추는 동화

“느낌 잡아 보라~”

토끼와 거북이

2018. 4. 3(화) ~ 13(금)

오전 11시 (토, 일 제외)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2018 부산시립극단 어린이연극체험 페스티벌

2018.5.4.(금)~5.(토)

오전 11시 ~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부산문화회관 앞 마당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입장권 2,000원

5/4(금) 챔버홀

- AM 11:00~ 부산시립극단
- PM 01:00~ -깨비와 떠나는 "뒤죽박죽 이야기 마을"-
- PM 2:30~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
- PM 3:30~ 부산시립무용단
토끼와 거북이 "날 잡아봐라"
- PM 4:3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동요나라-

5/5(토) 챔버홀

- AM 11:00~ 부산시립극단
- PM 01:00~ -깨비와 떠나는 "뒤죽박죽 이야기 마을"-
- PM 2:30~ 부산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신명나는 국악동요-
- PM 3:30~ 부산시립무용단
토끼와 거북이 "날 잡아봐라"
- PM 4:3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동요나라-

5/4(금)~5(토) 부산문화회관 앞 마당

- AM 11:00 체험 현장
- ~ -동물 만들기 - 비에로 풍선아트
- PM 17:00 -약기 만들기 - 전통금관 만들기
- 가면 만들기 - 로미와 줄리 사진촬영
- 어린이 난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책갈피 만들기
- 아프리카 사진퍼즐
- 부산미술학원연합회와 함께하는 체험 페스티벌
- 미술 전시회
- 목걸이 만들기 체험 등

View Plus

INVITATION TO THE ARTS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도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울속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 시민뜨락축제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가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한 야외무대 '시민뜨락축제'가 4월 6일부터 한 달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무대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10월, (재)부산문화회관과의 통합 기념으로 처음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시민뜨락축제'는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부산시민회관의 기획공연으로,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국악,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첫 무대로 4월 6일에는 지난해 발리국제합창제에 참가해 틴에이저, 민속 경연대회 2개 부문 금메달, 챔피언십 2개 부문 금메달, 심사위원 예술특별상, 심사위원 최고지휘자상 등 6개 부문에서 수상, 세계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이진륜)과 부산을 이끌어갈 차세대 연주자들로 결성된 실내악단 '더 블로섬(The Blossom)'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4월 13일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정규 음악 학사 및 석사 과정을 졸업한 연주자들로, 뉴욕에서 만나 같이 연주하며 활동하다 부산에서 다시 만나 결성하게 된 재즈퀼텟 '포나우퀼텟(4nowquartet)'이 관객들을 정통 재즈의 세계로 안내한다. 4월 20일에는 섬세하면서도 힘있는 금관악기 특유의 아름다움과 서정적으로 어우러진 품격있는 연주력을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매김한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가 정통 클래식 곡에서 팝, 재즈 음악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과 함께한다. 경기민요 제57호 이수자로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이소정 우리연구소 대표로 있는 이소정은

4월 27일, 제4회 부산직장인밴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장인밴드 레이디굿맨은 5월 4일 시민들과 만난다. 5월 11일 열리는 이번 시민뜨락축제의 마지막 주인공은 해외에서 실력파로 인정받고 있는 '팜페라 휴'. 소프라노 김지현과 테너 류무룡으로 결성된 국내 최초의 혼성 팜페라 듀엣인 '팜페라 휴'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파워풀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재해석해 크로스오버 음악의 진수를 선보여왔다.

한편, 시민뜨락축제가 열리는 금요일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은 프리마켓도 함께 운영되면서 시민들의 '유크한 문화하이터'로 깜짝 변신한다.

일정

- 4월 6일(금)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더 블로섬(The Blossom)
- 4월 13일(금) 재즈퀼텟 '포나우퀼텟(4nowquartet)'
- 4월 20일(금)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 4월 27일(금) 이소정(경기민요)
- 5월 4일(금) 레이디굿맨
- 5월 11일(금) 팜페라 휴

일시 4월 6일(금)~5월 11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장소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 우천시 취소

입장료 무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9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IV 일탈 혹은 일상



지휘 최수열



바이올린 심준호

무르익은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클래식 선율의 향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9회 정기연주회 '일탈 혹은 일상'이 4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28

지난해 9월, 최수열 상임지휘자 취임 이후 '관현악법의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해오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네 번째 무대로, 가정의 소소한 일상을 대규모 관현악으로 표현한 슈트라우스의 '가정 교향곡'을 비롯해 일상을 벗어난 일탈을 소재로 삼은 작곡가 진은숙의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엉망진창 티파티', 바로크의 흔적이 남아있는 하이든 초기의 대표작인 첼로 협주곡 제1번을 차세대 첼리스트 심준호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연주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는 작곡가 진은숙의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엉망진창 티 파티'. 현대음악의 거장 리게티의 제자였던 진은숙이 원작의 재기발랄한 상상력에 자극받아 작곡한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원작가 루이스 캐롤의 동화처럼 시종일관 기발한 상상력이 넘치며, 텍스트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배려한 다양한 음악적 시도들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첼리스트 심준호가 들려주는 하이든 '첼로 협주곡 제1번'으로, 200년 가까이 문서창고에 잠들어있다가 1961년 세상에 나오면서 이듬해인 1962년, 프라하의 봄 음악제에서 연주된 후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힘과 강렬한 희열을 뽐

어내는 선율로 오늘날 널리 연주되고 있다. 세계적인 거장 나탈리아 구트만으로부터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연주하는 진정한 음악가'라는 극찬을 받은 첼리스트 심준호는 2012년 안토니오 야니그로 국제 첼로 콩쿠르 2위, 2010년 쥘레스 뮤지컬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주목받았다. 심준호는 현재 ECMA(European Chamber Music Academy) 멤버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편,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작품인 슈트라우스 '가정교향곡'은 그의 아내이자 소프라노인 파울리네와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 프란츠와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머러스하고 애정이 넘치는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오보에 다모레(오보에족의 목관악기)와 색소폰 4중주를 대규모 오케스트라에 과감하게 사용하면서 뛰어난 음향 구현을 위한 그의 실험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4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전국 최대의 음악축제 '2018 교향악축제'에 참가한다.

일시 4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위한

로비음악회



지휘 최수길



부산시립교향악단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위한 로비음악회가 4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창립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회장 최수기)는 그동안 지속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후원활동 및 기부문화 조성에 힘써오는 한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품격높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 후원회에는 최수기 회장을 비롯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인사 57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모금된 1억 원의 후원금은 지난 창립총회를 통해 (재)부산문화회관에 전달한 바 있다. 후원회원은 이사회원(300만원 이상)과 일반회원(100만원)으로 구분하며, 후원회원에게는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기획공연 초대권 제공,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무료 주차혜택, 대극장 좌석 네이밍 등 다양한 예우가 제공된다.

후원회가 발족된 후 후원회원들을 위해 처음 열리는 이번 로비음악회에서는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후원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그 첫 무대는 모차르트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원 제목은 '현을 위한 세레나데 제13번 사장조 K.525'로 모차르트가 빈에서 1787년에 작곡한 4악장 구성의 실내악곡이다. '모차르트' 하면 떠오르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클래식 음악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유명하고 널리

연주되는 곡이다. 원래 현악4중주를 위해 쓰였으나, 더블베이스가 같이 연주하기도 하며, 각 악기별로 여러 명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형태로도 자주 연주된다. 시종일관 밝고 경쾌한 분위기에 4개 악장 모두 아름답고 친숙한 선율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명곡이다.

이어지는 곡은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한 '가브리엘의 오보에'. 영화 '미션'의 주제곡이자 우리에게 사라 브라이트만이 원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넬라 판타지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멜로디로 '오보에' 하면 떠오르는 이 곡은 수많은 영화음악을 남긴 모리코네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이다. 이날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오보이스트 조정현의 연주로 들려준다.

마지막 곡은 슈만의 피아노곡집 '어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로, 서정적이면서도 익숙한 선율로 총 13곡의 '어린이 정경'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이다. '어린이 정경'은 슈만이 클라리넷과 결혼한 직후 가장 행복했던 시기에 작곡한 작품으로,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린 곡이다. 7번째 곡인 '트로이메라이'는 '꿈'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선율의 반복과 단조로운 미묘함 속에 점차 꿈으로 빠져드는 듯한 편안함을 안겨준다. 로비음악회가 끝난 후에는 후원회원 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리셉션이 펼쳐진다.

일시 4월 19일 목요일 오후 6: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층 로비
입장료 초대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13, 600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VII 금난새 & 뉴 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금난새



피아노 박진형

약성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의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일곱 번째 무대가 4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10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시작된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은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그가 이끄는 뉴 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준높은 연주로 베토벤의 교향곡과 더불어 낭만과 시대의 대표적인 기악 협주곡을 들려주면서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을 이끌어온 지휘자 금난새는 1977년 최고 명성의 카리안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유러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거쳐 모스크바 필하모닉, 독일 캄머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으며,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와 수원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1998년부터는 벤치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현, 뉴 월드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창단, 시민들을 위한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금난새는 현재 성남시립예술단 총감독이자 상임지휘자, 한경 필하모닉 초대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도 환희와 낙관적인 분위기가 가장 충만한 '교향곡 제7번'과 피아노 독주의 화려한 기교로 '피아노를 위한 관현악곡'으로 불리는 쇼팽 '피아노협주곡 제1번'을 차세대 피아니스트 박진형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작곡가 리스

트와 바그너로부터 '리듬의 신화', '무도의 신화'라 극찬받은 베토벤 교향곡 제7번은 베토벤이 구축해온 '장대한 스타일'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후기 작품으로, 춤과 축제를 연상시키는 에너지 넘치고 다이내믹한 리듬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쇼팽 '피아노협주곡 제1번'을 들려줄 피아니스트 박진형은 지난 2009년 금호 영재 콘서트 독주회로 데뷔, 이듬해인 2010년 제59회 이화경향콩쿠르 1위, 2011년 CBS 전국청소년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후 2015년에는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본선에 진출했으며, 2016년 제42회 중앙음악콩쿠르, 제68회 프라하 봄 국제음악콩쿠르(Prague Spring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에서 1위 입상하는 등 그 실력을 입증받으며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제2회 아마하 음악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그 해 아마하 유스콘서트 독주회, 2014년 아마하 라이징 아티스트 독주회를 가졌으며 2017년에는 슬로바키아 필하모닉과의 협연무대, 금호 영아티스트 오프닝 콘서트, 프라하 봄 국제 음악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박진형은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 재학 중이며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불의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내한공연 with 변애영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피아니스트 변애영

‘불의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가 부산을 찾는다.

프랑스 르몽드로부터 ‘코르샤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 스타일, 테크닉, 존재감, 아이디어, 매력까지...’라는 극찬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는 미국 피플즈 매거진이 선정한 가장 sexy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클래식과 함께 바흐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한 콘서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가니니 국제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 룽티보 콩쿠르 그랑프리, 자노프란체스카티 국제콩쿠르에서 프리미어 그랑프리를 차지하며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로랑 코르샤는 유럽 음악계에서 예술적 기량과 음악적 다양성을 갖춘 이 시대에 드문 연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음반들은 이미 유럽의 까다로운 평론가들을 사로잡았으며, 음반과 연주활동을 통해 프랑스의 권위있는 음악상인 Victoires de la Musique을 수상했고 예술기사훈장(Chevalier des Arts et Lettres)을 수여받았으며 SACEM의 조르주 에네스코상, Charles Cros 음반 아카데미 그랑프리를 수상한 바 있다. 그동안 샤를 뒤투아, 장 끌로드 카사드쉬, 유리 아로노비치, 발레리 게르기예프, 엠마누엘 크리빈, 쿠르트 마주어, 미셸 플라송, 마뉴엘 로젠탈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오케스트라에 초대받고 있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클래식의 한계를 넘어 대중음악과 클래식, 현대음악과 그가 직접 작곡한 곡들로 수록된 ‘Danses’, ‘Doubles Jeux’를 발매하기도 한 로랑 코르샤는 2009년, EMI레이블로 영화음악 100주년을 기념한 음반인 ‘시네마’를 발매, 이 앨범에 수록된 ‘화양연화’가 우리나라 드라마에 삽입되면서 뜨거운 사랑을 받기도 했다. 로랑 코르샤는 지난 2011년 첫 내한공연을 시작으로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올해 한국을 찾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음악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국립음악원을 수석졸업한 피아니스트 변애영이 함께 무대에 선다. 로랑 코르샤와 함께 프랑스 및 유럽 전역에서 4년째 함께 연주무대를 가져오고 있는 피아니스트 변애영은 깊은 울림과 섬세한 터치로 가진 피아니스트로 현재 파리 샤틀레 극장과 마씨 오페라 등에서 오페라 코치로 활동하고 있으며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Rueil-Malmaison 음악원에 출강하는 한편 부산국제음악아카데미 음악감독을 겸하고 있다.

로랑 코르샤와 변애영의 앙상블이 돋보일 이번 무대에서는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2번’, 이자이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소나타 제3번 ‘발라드’를 비롯해 E. 블로흐, 제오르제 에네스코의 곡을 들려준다.

일시 4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3만원 **문의** (사)송인문화재단 623-3331, 010-9991-753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3 오페라 이야기 II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2018년 두 번째 무대가 4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한 해 (재)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는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깊이있는 해설로 그동안 관객들을 행복한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왔다.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19세기 전반 오페라를 대표하는 '벨칸토 오페라의 대가' 도니제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헤럴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유니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김봉미의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소프라노 박현주, 테너 조현광, 바리톤 박대용, 베이스 한혜열의 협연으로 도니제티의 대표적인 오페라 '사랑의 묘약', '람베르무어의 루치아'의 주요 아리아를 1, 2부로 나누어 들려준다. 1부 무대는 희극성과 진지함이 뒤섞인 도니제티의 멜로 드라마 '사랑의 묘약'으로, 서곡을 시작으로 아리아 '옛날에 파리가 한 것처럼', '여러분 들어보세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이것을 받으세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를, 2부에서는 프리마돈나들을 위한 오페라로 유명한 '람베르무어의 루치아' 중 '나의 한숨은 산들바람에', '연회를 멈추시오', '광란의 아리아'를 들려준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박현주는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을 졸업하고 독일 베르크하임콩쿠르 1위, 쾰른국제음악콩쿠르 1위 및 관객상, 일본 시즈오카 국제오페라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독일 NRW주 선정 올해의 스타상, 2009 대한민국 오페라상 여자 성악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독일 드레스덴 챔퍼오퍼 단원으로 활동 중인 테너 조현광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베를린국립예술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제47회 안톤 드보르작 국제성악콩쿠르 1등 및 바로크음악 특별상, 제2회 베를린국제음악콩쿠르 성악부문 2위, 제18회 KBS 서울신인음악콩쿠르 성악부문 1위 등 국내외 다수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박대용은 동아대학교 예술대학과 이탈리아 주셉페 니콜리니 국립음악원, C.E.D.E.M 국제성악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칠레이국제성악콩쿠르 우승, 엔나 국제성악콩쿠르 3위, 콜레페로국제성악콩쿠르 2위, 프랑코 코렐리국제성악콩쿠르 뮤제극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독일 데트몰트국립극장 솔리스트로 활동 중인 베이스 한혜열은 한세대학교 및 동대학원 성악과, 독일 데트몰트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엄정형성악콩쿠르 대상, 대구성악콩쿠르 최우수상 등 국내 콩쿠르 및 'Cappuccilli', 'Rubini', 'Maria Milbran'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6회 정기연주회 國樂, 4월에 부르는 봄의 노래



무르익는 봄기운을 국악의 신명으로 노래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6회 정기연주회 ‘國樂, 4월에 부르는 봄의 노래’가 4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홍희철이 지휘하고 수석지휘자 이정필의 사회, 거문고주자 이대하, 소프라노 박은주,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예술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패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창작 국악관현악에서부터 거문고협주곡, 창작가곡, 나폴리민요, 판소리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특히 국악과 양악의 성악을 대표하는 소리꾼과 성악가, 합창단이 출연,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지는 경쾌한 노래로 봄의 흥취를 전한다.

지난해 12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로 선임된 지휘자 홍희철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와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음악교육학),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관현악지휘), 이태리 밀라노 G. Donizetti 시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과정을 졸업하고 부산국악오케스트라(BKO) 지휘자, 효원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를 역임했다. 홍희철은 부산MBC라디오 ‘가정음악실’에서 ‘홍희철의 재미있는 우리음악이야기’ 해설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10년 부산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첫 무대인 조석연의 국악관현악 ‘거동’은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고 창작음악제 수상작으로, 역대 임금들의 행차 대행렬을 국악관현악으로 절도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는 신주연의 거문고 협주곡 ‘비상’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부산동

보악회 회장 이대하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박경훈의 국악관현악 ‘서경별곡’은 입을 떠나는 여인의 마음을 담은 원곡의 선율에 이별과 그리움의 정서를 보태어 더욱더 드라마틱한 느낌을 살려냈다. 특히 이들 세 곡 모두는 부산초연곡으로 창작국악이 들려주는 특별한 매력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국악관현악과 성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 소프라노 박은주,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 이원주의 창작가곡 ‘베틀노래’, 나폴리민요 ‘푸니쿨리 푸니쿨라’, 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령’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박은주는 능숙한 고음처리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유럽무대에서 활동해오다 지난 2010년부터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마지막 무대는 박범훈의 사물과 연희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패(뽕과리 이주현, 장구 전학수, 징 최오성, 북 박재현)와 부산예술단(단장 김상현, 김민상, 조한민, 김재현, 황진상, 김준호)의 신명넘치는 연주로 들려준다. 1984년 부산풍물패 사물놀이로 창단한 후 지난 2000년 젊은 전통예술인들로 재구성, 새롭게 발족한 부산예술단은 그동안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예술 공연단체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일시 4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The 36th Busan Theater Festival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부산연극제 2018년 무대가 4월 12일부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34

4월 12일(목)~29일(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2만원
(경연작 9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종합티켓 5만원)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특히 올해로 36회를 맞는 이번 부산연극제는 오랜 전통을 계승하되 또 다른 미래를 이어가 고자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 시기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4월 열리는 이번 연극제 기간 동안에는 부산연극제의 메인 프로그램이자 2018 대한민국연극제 부산지역 예선을 겸 한 경연부문이 열리며, 부산연극제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작강(작지만 강한) 연극제'와 '내일의 걸작2'는 6월과 8월 펼쳐진다. '작강(작지만 강한) 연극제'는 갈수록 대형화되어 가는 연극 제작 환경 속에서 소극장 연극만이 지닌 매력과 즐거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한편, 참여 극단에게는 창작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의욕을 북돋울 계획이다. '내일의 걸작2'는 젊은 연극인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차세대 연극인을 육성시키는 인큐베이팅 사업의 일환으로, 소극장 연극경연의 장으로 운영된다.

올해 경연부문에는 부산연극협회 소속 24개 극단 중 9개 극단이 참여한다. 지난해부터 '창작 초연'으로 제한했던 경연부문의 참가조건을 '개막 1년 이내의 작품으로 완화하면서 지난해 부산 브랜드콘텐츠 선정작으로 소개됐던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과정'을 비롯해 극단 연, 극단 누리예의 '그림자의 시간', 극단 더블스테이지 '거룩한 양복' 극단 세진 '우리안치', 극연구집단 시나위 '뿔', 극단 이그라 '애꿎다', 극단 이야기 '막심 그루같이', 극단 자유바다 '춤추는 소나무' 등이 관객과 만난다. 특히 극단 연과 극단 누리예의 동시 선택을 받은 유보배 작가의 '그림자의 시간'은 지난해 제10회 전국창작희곡 공모전 대상작이며, 극연구집단 시나위 '뿔'과 극단 세진 '우리안치' 역시 지난해 제1회 부산창작희곡 공모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작품들로, 부산연극제를 통해 많은 창작극들이 소개되면서 창작극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 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은 오는 6월 대전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연극제 부산대표로 참가하며, 극단 단원 2명에게는 해외 연극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는 해외연수 특전을 제공한다.

이밖에 부산지역 아마추어 연극인이 참여하는 '부산시민연극제'는 60분 단막극 7개팀, 10분 단막극 4개팀 등 총 11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4월 27일부터 사흘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한편, 2017 부산연극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12일 저녁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시상 및 폐막식은 4월 29일 저녁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마지막 경연작 무대가 끝난 후 개최된다.



경연 참가작



극단 연 '그림자의 시간'

(작/유보배, 연출/오정국)

4월 12일(목)~13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제10회 전국창작희곡 공모전 대상작으로, 조선시대 단발령 단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후 상황을 상상력을 곁들여 집필한 역사극. 길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희망을 찾고 싶으나 절망의 그림자가 더 길고 무겁게 짓눌렀던 현실을 그려낸다.



극단 세진 '우리안치'

(작/심상교, 연출/김세진)

4월 15일(일) 오후 6:00, 16일(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제1회 부산창작희곡 공모에서 은상을 수상한 원작을 시간의 흐름을 뒤집어 역순 행적 구성으로 연출한 작품. 조선시대 최고의 칼잡이, 자객, 살인자였던 과거를 묻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대장간 일을 하며 소소한 행복 속에서 살고 있는 무경의 가족이 일련의 모반 모의에 휩싸이면서 파국을 맞게 된다는 비극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극단 누리에 '그림자의 시간'

(작/유보배, 연출/강성우)

4월 18일(수)~1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조선시대 단발령이 내려진 일제 암흑시대, 일본의 검박에 의해 이발기술을 배워야 했던 한 내관의 삶의 운명을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작품.



극단 더블스테이지 '거룩한 양복'

(작/김지숙, 연출/김동민)

4월 21일(토)~22일(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979년 부마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그 역사적인 순간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있었던 평범한 한 주인공의 그날을 통해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작품.



극단 이야기 '막심 그루같이'

(작/남혜진, 연출/박현형)

4월 22일(일) 오후 6:00, 23일(월)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작은 임대아파트 텃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상과 갈등 속에 이웃 간의 소통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 '그루같이'란 한 해 두 번 작물을 심는 것을 말한다.



극단 이그라 '애꿎다'

(작/김문홍, 연출/최성우)

4월 24일(화)~25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조선시대 사도세자의 죽음을 배경으로, 사도세자가 왜, 어떻게 죽어 갔는가에 초점을 두고 그의 내면의 풍경을 담아낸 작품.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사건들은 배경으로 다루면서 오직 아버지와 자식 간 관계를 통해 가족의 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치적 술수가 아닌 아버지 영조와의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그의 죽음의 이유를 찾아본다.



극연구집단 시나위 '별'

(작/윤희정, 연출/김동현)

4월 25일(수)~26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제1회 부산창작희곡 공모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 서로 다른 아픔을 품고 자살을 하기 위해 무량사로 향하는 70대 할매와 30대 여자의 이상한 동행을 그린 작품으로, 지금 현재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서서 다시 시작해보자며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과정'

(작, 연출/최은영)

4월 27일(금) 오후 7:30, 28일(토)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가가 알려진 유일한 우리말 고령가요 '정과정'을 소재로, 천년의 세월 속에서도 남아 빛나는 아름다운 시 저편에 담겨있을 그 시대의 삶과 사랑을 재조명한 작품. 지난해 부산 브랜드콘텐츠 선정작으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극단 자유바다 '춤추는 소나무'

(작, 연출/정경환)

4월 28일(토)~29일(일)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스스로 감옥처럼 살아가는 해변의 술집여자 해연, 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떠도는 남자 무송,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작품.



2018 제35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이제 다 함께(Now Together)

4월 24일(화)~29일(일)
 영화의전당,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사)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운영위원회 742-9600
 www.bisff.org

우리나라 최초의 단편영화제이자 그동안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세계 각국의 우수한 단편영화들을 소개해온 제35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4월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간의 축제를 시작한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지난 1980년, 8mm 소형영화를 비롯해 대학생 및 일반인들의 독립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편영화들을 소개하던 한국단편영화제에서 출발, 1982년 대한민국 단편영화제, 1987년 한국창작단편영화제를 거쳐 1997년 부산단편영화제, 2000년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로 확대 개편,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제작된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단편영화들을 소개해오다 지난 2010년부터 부산국제단편영화제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로 35회를 맞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응모작 총 129개국 5,921편 중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한국경쟁 부문 20편, 국제경쟁 부문 42편 등 총 6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이는 지난해 126국 4,773편보다 훨씬 많은 1,148편이 늘어난 숫자로, 영화제 역대 최다 출품을 기록하며 해마다 높아져가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62편의 본선 진출작들은 최우수 작품상, 우수 작품상, 심사위원 특별상, 부산 시네티널 어워드, 연기상, 넷팩상 등 총 10개 부문별 시상에서 경쟁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 '아카데미 공식 지정영화제' 기준이 적용되면서, 국제경쟁과 한국경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작품들은 아카데미 시상식의 단편 부문 후보로 검토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단편영화의 스펙트럼을 통해 한 나라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기회를 제공하는 '주빈국 프로그램'의 올해 주인공은 뉴질랜드로, 뉴질랜드 단편영화의 경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뉴질랜드 파노라마', 세계적인 뉴질랜드 거장 감독들의 단편영화를 볼 수 있는 '뉴질랜드 시네아스트',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사람들이 사는 뉴질랜드의 이야기가 담긴 '뉴질랜드 레인보우' 등 3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다양한 단편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또, 내년 주빈국인 스위스 단편영화를 미리 만나는 '프리퀼 오브 스위스와 재능 있는 뉴질랜드·스위스 감독들이 만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BISFF 토크, 듀엣'도 마련된다. 또 개막식에서는 주빈국 뉴질랜드 토착민족 마오리족의 전통 공연과 개막작으로 축제의 서막을 열 예정이다.

전 세계 단편영화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된 통합 프로그램 '월드 쇼츠'도 올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 세계 거장 감독들의 신





작 단편과 국내에 미처 소개되지 못했던 주목할 만한 작품, 그리고 단편영화만의 고유한 영역을 개척하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프리즘'과 아시아의 창의적이고 뛰어난 단편제작자를 발굴, 지원하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아시아 단편', 칸 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 영화제의 단편영화 부문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컷튼롤', 전년도 주빈국이었던 캐나다의 흥미로운 단편영화들로 구성된 '퀘백에서 온 짧은 편지' 등 4개 프로그램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이밖에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패밀리 단편과 부산지역 영화/영상학과 제작지원 프로젝트로, 사전 제작지원으로 완성된 다큐멘터리 작품을 상영하고 시상하는 오퍼레이션 키노, 그리고 영화제를 찾기 힘든 부산지역 시민들에게 단편영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관객과 프로그래머가 함께 나누는 영화이야기 '관객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영화제 기간 동안 진행된다.

2018 생활문화 네트워크 페스티벌 다가치 놀자



4월 7일 토요일 오후 4: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부산문화재단 745-7277~9
www.bsfc.or.kr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 동아리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생활 속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2018 생활문화 네트워크 페스티벌 '다가치 놀자'가 4월 7일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 펼쳐진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춤과 풍물패, 난타(모듬북), 가야금, 단소연주 등 무용과 국악을 즐기는 예술 동아리 및 일반 시민 참가자 2,030명이 펼치는 대규모 퍼포먼스 무대로, 올해는 지난 1918년 구 한성은행 부산지점으로 건축된 청자빌딩이 100년 만에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로 다시 태어난 것을 기념해 펼쳐진다. 지난해 11월 처음 열렸던 2017 생활문화 네트워크 페스티벌에서는 총 2,017명의 시민이 참여해 부산시민 대합주 '악기야 놀자'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규모 퍼포먼스 공연 외에도 시민과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기 기부 캠페인도 함께 펼쳐진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기부 받아 점검·수리 후 아동복지단체에 전달할 예정인데, 악기 기부는 4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받으며 이날 행사장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럽신인 오페라 갈라 콘서트



◆ 김윤선 음악평론가

(재)부산문화회관 2018년 두 번째 기획공연 '유럽신인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지난 2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을 가득 메운 채 성공적인 무대를 가졌다. 이 날 공연은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서양음악 본고장의 오페라 극장에 데뷔하거나 국제콩쿠르 수상 경력을 가진 유능한 차세대 신인성악가들의 열띤 향연으로 그 간의 실력과 기량을 한 번에 보이는 부담과 당당한 호연의 릴레이를 동시에 보는 듯했다.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을 시작으로 베이스 김신호가 첫 무대에 올랐다. 스페인 오페라 극장에서 데뷔한 그는 2018년 6월 무대에 준비 중인 로시니의 오페라 '신데렐라'의 의붓아버지 마니피코역의 아리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를 가사의 뉘앙스를 살려 침착하면서도 전달력 있게 불렀다. 2017년 그리스 마리아 칼라스 국제콩쿠르 오페라 부문 입상자 테너 이준범은 오페라 '아를르의 여인' 중 '페데리코의 탄식'을 감미로운 미성과 매끄러운 고음 처리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소프라노 김리라는 2016년 로베르트 마사르 국제콩쿠르 오페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프랑스 국립오페라 극장에 데뷔했다. 김리라가 부른 구노의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는 명확하면서도 세련된 디션과 오케스트라와의 균형 있는 볼륨을 유지하며 화려하게 무대를 장식했다. 부산 출신의 테너 정필립은 번스타인 메모리얼 콘서트, JTBC 남성 중창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 2'에 출연하여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넘나들며 '농부테너'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필립의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진지하고 순박한 네모리노의 캐릭터를 풍부한 성량에 담아 담백하게 불렀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차

세대 유망주로 떠오른 바리톤 조병익은 베르디 최고의 역작 '돈카를로' 중 '나의 최후의 날'을 열창했는데 정치적 음모로 죽음을 앞둔 비극적 배역을 충분히 소화해내며 절절하게 표현, 풍부한 음성이 오케스트라 반주와 혼연일체를 이루어 많은 갈채를 받았다.

독일 괴를리츠 오페라하우스에 캐스팅된 소프라노 정한나는 베를린 국립극장에서 주역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 벨기에 등지 콩쿠르에서 우수한 수상경력을 가진 정한나에게서는 능숙한 연기력과 객석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능력을 엿볼 수 있었다. 테너 이명현은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내외 유명 콩쿠르에서 1위를 섭렵했다. 이명현이 부른 '라보엠' 중 '그대의 찬 손'은 수많은 대가들의 목소리로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해석과 보석 같은 음색이 우리 귀를 자극하여 감동의 박수를 받았다.

열띤 향연을 벌인 차세대 성악가들의 참신한 무대였던 이번 공연은 변화 많은 현대 사회에서 예술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한다. 클래식 음악의 트렌드가 변해가고 숭고한 예술에 대한 의지가 꺾이는 현실에서 이들의 뜨겁고 진지한 음성에서 진정한 음악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장르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동서양의 음악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젊은 성악가들의 생생한 예술혼은 어느 기성 음악가들의 연주를 뛰어넘는 감동을 주었음에 박수를 보낸다. 덧붙여 유럽 각지 성악 콩쿠르 입상, 오페라 무대 캐스팅의 화려한 경력만을 자랑삼을 것이 아니라 무대 위 진정한 실력으로 살아남는 스타 탄생의 장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란다.

부산시립극단 제61회 정기공연,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 월클¹⁾ '맥베스'



◆ 심상교 연극평론가,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불길한 소리가 음산함을 관통하자 '맥베스'²⁾가 시작되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늘어뜨려진 흰색 종이들로 무대에는 음산한 기운이 가득했다. 시간이 되자 까마귀 소리가 짧게 들렸다. 불길한 소리가 음산한 종이 사이로 지나가면서 예언, 질투, 욕망, 복수가 객석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맥베스'는 간결했고 투명했다. 원작 '맥베스'는 사실, 두텁고 지루하다. 셰익스피어 원작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눈감아도 장면이 떠올라야 한다. '춘향전'처럼 익숙해졌을 때 셰익스피어는 손에 잡히기 시작한다. 볼거리가 많지 않았던 1600년경, 사람들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여러 번 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지상 최고의 예술품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렸다.

볼거리가 지천인 현대에는 셰익스피어만 볼 수 없다. 그 탓에 원작 '맥베스'는 이제 두텁고 지루해졌다. 때문에, 현대의 셰익스피어는 때이고 뜯기는 시련을 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맥베스'는 동시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공연이었다. 등장인물 숫자와 내용의 번개는 원작에 가한 아름다운 시련이었기 때문이다. '맥베스'는 예언이 지배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였다. 예언은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지배하였고 갈등을 유발하여 혼란과 파멸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계적 존재인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욕망을 드러내며 한 줌에 불과한 자신의 예지력을 신의 위대함과 비견하려는 어리석음을 드러낸 점도 원작과 비슷했다.

'맥베스'에는 원작과 다른 부분도 여러 곳이다. 원작에는 던컨왕이 직접 등장하지만 '맥베스'에서 던컨왕은 상징적으로 처리된다. '맥베스'에서 뱅코의 아들이 맥베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지만 원작에서는 던컨왕의 아들 즉, 왕세자가 왕위를 잇는다. 그리고 원작

에 뱅코의 부인은 등장하지 않는데 '맥베스'에서는 뱅코의 부인이 주요인물로 등장했다. 한국적 비극성을 '맥베스'에 융합시킨 점은 훈장이었다. 패배자 뱅코의 아들이 맥베스를 누르고 왕위를 차지함으로써 악한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해피엔딩을 가미하는 한국만의 비극성이 '맥베스'에서 부각되었다. 무당이나 한국적 복색도 의미 있지만 한국적 비극성을 '맥베스'에 담는 의미있는 성취를 보였다.

배우들의 연기는 객석 곳곳에 슬픔과 격앙, 노여움, 복수를 배달하였다. 하지만 배우들의 감정표현이 좀 더 완전하기를 기대한다. 성악가들이 목소리의 특성에 따라 테너, 소프라노 등으로 나뉘는 것처럼 배우들의 목소리 특성도 연기 상황에 따라 나눠 살필 필요가 있다. 참담·침잠을 잘 표현하는 배우가 있는가 하면 분노·격앙을 잘 표현하는 배우가 있고, 슬픔과 기쁨 중 어느 하나를 더 잘 표현하는 배우가 있다. 화내는 연기는 잘하지만 애정을 표현하는 연기는 그보다 못할 수 있고, 왕의 대사는 잘 구현하지만 신하의 대사는 잘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한 쪽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맥베스 역(엄준필)과 뱅코(황창기) 그리고 그 부인들(김은희/엄지선)의 연기 불꽃대결은 일촉즉발의 갈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시구장(정마린), 조고(이현주), 대신하(배기철)의 연기는 월클 '맥베스'를 만드는 기둥이었고 높게 설치한 계단은 가련하고 위태로운 인간 운명을 표현하는 데 일조하였다. 부산에서 이처럼 조화되고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연극이 더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1) 월드클래스

2)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 / 2018.03.19.~03.24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일 시 2018년 1월 1일(월)~4월 8일(일) 전시실
입장료 성인(만 19세~64세) 1만 3천원
청소년(중·고교생) 1만 1천원
어린이(48개월~초등학생) 9천원
45개월 미만 무료(증빙서류 지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70-7542-8531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시작을 알렸던 특별한 전시 '라이프 사진전'. 그동안 국내 전시에서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130여 점을 엄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부터 평범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지난 세기의 역동성을 생생히 전한다. 전시는 20세기를 바라보는 207가지 이야기가 담겨있는 'This is LIFE', 하나의 스타일이 되어버린 상징적인 인물과 사건을 나란히 배치한 'icon', 오로지 20세기에 탄생한 물건과 현상에 대한 오마주를 담은 '20th Century Life' 그리고 사진집지 '라이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사선을 보여주는 마지막 섹션 'Hope' 등 47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똑딱하니 어흥!

일 시 3월 16일(금)~5월 31일(목) 오전 11:00
(월요일 공연 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미만 입장 불가, SNS 공유 50%, 4인 가족 이상 6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제4회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아동청소년부문에서 아시테지상을 수상한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똑딱하니 어흥!'. 어린이전용극장 두 번째 작품으로 선보이는 '호랑이와 꽃감', '호랑이 형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 3가지 전래동화를 소재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한편 궁 중 교훈을 통해 용기와 협력, 용서와 관용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친다. 특히 어린이 관객들은 직접 만든 도깨비 방망이를 통해 나쁜 호랑이를 쫓기도 하며 위기에 처한 오누이를 도와주는 등 배우들과 함께 극을 이끌어 나간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익스트림 댄스 코메디 브레이크 아웃

일 시 3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31일~4월 1일 토~일요일 오후 2:00, 6:00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비보이들의 현란하고 신나는 익스트림 댄스와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제작된 익스트림 댄스 코메디 '브레이크 아웃'. 지난 2007년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비보이 댄서들의 현란한 춤을 기반으로 탄생된 '브레이크 아웃'은 자유를 향한 죄층을 죄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탈옥기가 K-Dance와 함께 펼쳐진다. 특히 제작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해 제작된 '브레이크 아웃'은 지난 2007년 세계 공연의 중심부인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 박스 오피스 No.1과 Cavalcade Best Walking Group을 수상했으며, 2008년에는 뉴욕 오프브로드웨이에서 장기공연을 올려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정경화 초청 리사이틀

일 시 4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 50년 동안 강력한 음악적 감수성과 예술적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로 전 세계 음악애호가들의 높은 찬사를 받아온 '바이올린의 여제' 정경화 초청 리사이틀. 지난 1967년 레벤토리트 콩쿠르 우승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으며 세계 음악계에 등장한 정경화는 지난해 데뷔 50주년을 맞아 뉴욕 카네기홀과 런던 바비컨 센터에서 기념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정경화는 지난 2007년부터 모교인 줄리어드 음악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포레/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작품 13
브람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작품 108
프랑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 장조
● 피아노/케니 케너

부산은파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4월 3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문화공간(주) 010-3839-1084



부산의 대표적인 실버합창단으로 현재 82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은파합창단(회장 차순남, 단장 박경자) 정기 연주회. 지난 2010년 창단한 부산은파합창단은 2012년과 2014년에 국립극장 주최 전국실버합창단대회 부산대표로 참가했으며, 2012년 대구환경노래합창경연대회 동상, 2014년 필리핀 보홀(BOHOL) 국제합창페스티벌 및 합창대회 시니어부문 금메달, 2016년 부산실버합창대회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별, 고독, 아 목동아, 나성에 가면, 해피송, 울릉도 트위스트, 밀양아리랑, 새이새야, 날리맘보
● 지휘/이홍길(고신대학교 초빙교수)
● 반주/엄해경
● 특별출연/해피앙상블, 기장소년소녀합창단
금생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음식으로 맛보는 합창

일 시 4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음식'을 주제로 다양한 창작곡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음식으로 맛보는 합창'.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커피 C#중으로 유명한 칸타타 BWV 21'을 비롯해 우리의 미각과 행복, 건강까지 책임지는 음식을 주제로 한 재미있는 합창곡들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바흐/칸타타 BWV 21
요즘 생각나는 어릴때 먹던 그 음식(합창)/국수나 한 그릇 허러 가세, 중화반점, 어머니와 고동어 때론 우아하게(여성중창)/외인과 매너, 뱃꽃 팝콘 막걸리에 반한 나(남성중창)/꽃게, 막걸리송
분식점에서 듣던 그 노래(합창)/팔빙수, 김밥, 카레

사제간의 음악여행

일 시 4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연주자이자 교육자로 그동안 많은 제자를 양성해 온 안양대학교 선우난영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사제간의 음악여행'.

스승인 선우난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이태리 아테네오 음악협회 초청 독주회 등 수차례 독주회와 이태리 G. Verdi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국내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선우난영과 김현정, 사공유정, 유지현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명곡으로 피아노 앙상블의 매력을 전해준다.

프로그램

- 시벨리우스/핀란드아
- 번스타인/웨스트 사이트 스토리
- 라흐마니노프/보칼리제
- 카차투리안/가면무도회
- 볼콧/에덴의 동산
- 라비나크/궤돌 행진곡 등 수록

바리톤 이응광 리사이틀 with 피아니스트 한상일

일 시 4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5만원
문의 부산아트메니지먼트 740-5833



특유의 서정적인 보이스와 섬세한 테크닉으로 유럽 무대를 사로잡고 있는 바리톤 이응광 리사이틀.

2006년 독일 알렉산더 지라르디 국제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2008년 이태리 리카르도 잔도나이 국제 콩쿠르 1위

및 3개의 특별상 수상, 2010년 스위스 에른스트 헤플리거 국제 콩쿠르 1위 등 연이은 수상행진으로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이응광은 2007년 국립 오페라단 '라보엠'으로 국내에서 데뷔한 후 이듬해 스위스 바젤 오페라극장 전속 가수로 캐스팅되어 본격적으로 유럽 무대에 데뷔했다. 이응광은 특히 무대 위에서 과감한 퍼포먼스, 다채로운 연기 실력, 화극과 비극을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연출자, 지휘자는 물론 다양한 관객층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다채로운 음색, 탄탄한 테크닉, 특유의 섬세함과 음악적 개성을 지닌 피아니스트 한상일과 함께 한다.

원스트링챔버 협주곡의 밤 시리즈 II

일 시 4월 8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문의 원스트링챔버 010-4550-9961



견고한 실력과 온화한 리더십을 갖춘 바이올리니스트 이정일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의 열정적인 실력파 연주자들로 결성된 원스트링 챔버와 차세대 연주자들의 협연무대로 마련되는 협주곡의 밤 두 번째 무대.

모두가 하나된 음악으로, 정확한 해석과 다양한 색채를 통해 앙상블의 진수를 선사하고자 노력해온 원스트링챔버는 전문클래식 공연에서부터 앙로원, 요양원, 다문화가정 등 예술문화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외계층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연주자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6명의 음악전공자들이 출연. 원스트링챔버와의 협연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오창록
- 협연/이수정(바이올린), 조운서(플루트), 최시온(바이올린), 정예진(첼로), 김나현(바이올린), 신예원(플루트)

사랑나눔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2018 사랑나눔음악회 '애, 대한민국 희망을 노래하다'

일 시 4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사랑나눔합창단 010-3038-7191

음악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나눔합창단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사랑나눔음악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해온 사랑나눔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라이온스 합창단, 우리사랑합창단, 아진투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애, 대한민국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타이틀로 희망과 화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태극기의 4괘를 의미하는 '건곤감리'를 4악장에 담아 대한민국의 번영을 그린 유희원의 '애,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 OST, 뮤지컬 '레미제라블' 넘버를 비롯해 아름다운 가곡 및 가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어려운 우리이웃을 위한 '사랑의 라면 나눔 음악회'로, 공연을 통해 기부된 라면은 부산남구청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지휘/임재우
- 피아노/정혜정

임재홍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4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원숙한 음악성과 인간애의 조화로 예술혼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독주회.

서울예고 졸업 후 영국 런던 길드홀 음악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잘츠브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독일 뮌헨 국립음대를 졸업한 임재홍은 어린 시절부터 각종 콩쿠르 수상으로 그 음악성을 입증했으며 매년 수회의 독주회와 초청연주회를 통해 끊임없는 예술적인 감각과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의 진면목을 선보여왔다.

프로그램

-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바단조 작품 24 '봄'
- 쇼송/사극 작품 25
-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9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IV 일탈 혹은 일상

일 시 4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무르익은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클래식 선율의 향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9회 정기연주회 '일탈 혹은 일상'.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네 번째 무대로, 기정의 소소한 일상을 대규모 관현악으로 표현한 슈트라우스의 '가정 교향곡'을 비롯해 일상을 벗어난 일탈을 소재로 삼은 작곡가 진은숙의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중 '영망진창 티파티', 바로크의 흔적이 남아 있는 하이든 초기의 대표적인 첼로 협주곡 제1번을 차세대 첼리스트 심준호와 협연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일 시 4월 12일(목)~29일(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경연작 9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종합티켓 5만원)
문의 (사)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 연극 최대 축제인 2018 부산연극제, 2018 부산연극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12일 저녁 7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시상 및 폐막식은 4월 29일 저녁 6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경연작 무대가 끝난

후 개최된다.

- ▶ **극단 연 '그림자의 시간'(작/유보배, 연출/오정국)**
4월 12일(목)~13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제10회 전국창작희곡 공모전 대상작으로, 조선 시대 단발령 단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후 상항을 상상력을 곁들여 집필한 역사극.
- ▶ **극단 세진 '위리안치'(작/심상교, 연출/김세진)**
4월 15일(일) 오후 6:00, 16일(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제1회 부산창작희곡 공모에서 은상을 수상한 원작을 시간의 흐름을 뒤집어 역순행적 구성으로 연출한 작품.

- ▶ **극단 누리에 '그림자의 시간'(작/유보배, 연출/강성우)**

4월 18일(수)~1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조선시대 단발령이 내려진 일제 암흑시대, 일본의 겹박에 의해 이발 기술을 배워야했던 한 내관의 삶의 운명을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작품.

- ▶ **극단 더블스테이지 '거룩한 양복'(작/김지숙, 연출/김동민)**

4월 21일(토)~22일(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979년 부마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저 그 자리에 있었던 평범한 한 주인공의 그날을 통해 자유와 평

- ▶ **극단 이야기 '막심 그루갈이'(작/남혜진, 연출/박현형)**

4월 22일(일) 오후 6:00, 23일(월)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작은 임대아파트 텃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상과 갈등 속에 이웃 간의 소통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

- ▶ **극단 이그라 '애꿎다'(작/김문홍, 연출/최성우)**
4월 24일(화)~25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조선시대 사도세자의 죽음을 배경으로, 사도세자가 왜, 어떻게 죽어갔는가에 초점을 두고 그의 내면의 풍경을 담아낸 작품.

- ▶ **극연구집단 시나위 '뽕'(작/윤희정, 연출/김동현)**
4월 25일(수)~26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제1회 부산창작희곡 공모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 서로 다른 아픔을 품고 자살하기 위해 무량사로 향하는 70대 할머니와 30대 여자의 동행을 그린 작품.

- ▶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과정'(작, 연출/최은영)**

4월 27일(금) 오후 7:30, 28일(토)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가가 알려진 유일한 우리말 고려가요 '정과정곡'을 소재로, 천년의 세월 속에서도 남아 빛나는 아름다운 시 저편에 담겨있을 그 시대의 삶과 사랑을 재조명해보는 작품.

- ▶ **극단 자유바다 '춤추는 소나무'(작, 연출/정경환)**
4월 28일(토)~29일(일)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작품.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특별 기획공연
3인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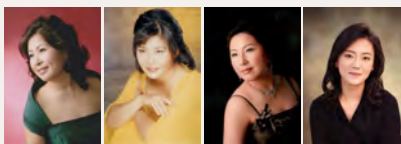
일 시 4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010-2330-0994

유럽 각국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부산대학교 출신 성악가들로 구성된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특별 기획공연 '3인 음악회'.

프랑스어로 '친구, 우정'을 뜻하는 아미티에 성악연구회는 지난 1987년 창단된 후 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주제가 있는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소프라노 김양자, 김경희, 서정아, 피아니스트 이현주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한국가곡과 유럽의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으로 관객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

- 소프라노/김양자, 김경희, 서정아
- 피아니스트/이현주



소프라노 허영은 독창회

일 시 4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로 유학,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오페라, 러시아 가곡)을 졸업한 소프라노 허영은 독창회.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에서 열두 차례 독창회와 조인트 리사이틀, 러시아 모스크바 방송오케스트라, 예르미타주 국립오케스트라, 울라노프스크 국립오케스트라, 마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코리아나 브라스앙상블, 부산심포닉밴드, 팝스&퍼커스 앙상블, 뮤즈앙상블과의 협연무대 등 다수 무대에서 서운 허영은은 현재 경상대학교 외래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 작곡가인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를 비롯해 이수인, 신귀복 등 우리가곡, 모차르트, 도니제티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강남길 ● 찬조출연/바리톤 윤오건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위한
로비음악회

일 시 4월 19일 목요일 오후 6:00 대극장 1층 로비
입장료 초대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13, 6006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로비음악회, 부산문화회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발족한 부산문화회관 후원회(회장 최수기)는 그동안 지속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후원활동 및 기부문화 조성에 힘써오는 한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품격높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후원회가 발족된 후 후원회원들을 위해 처음 열리는 이번 로비음악회에서는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후원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로비음악회가 끝난 후에는 후원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리셉션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엔니오 모리코네/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슈만/어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 지휘/최수열(상임지휘자)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협연/조정현(부산시립교향악단 오보에 수석)

불의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나한공연 with 변애영

일 시 4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3만원
문의 (사)송인문화재단 623-3331, 010-9991-7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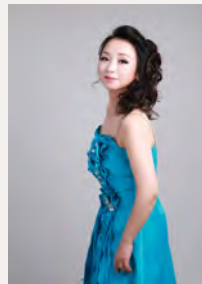
‘불의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와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국립음악원을 수석 졸업한 피아니스트 변애영의 듀오무대.

미국 피플즈 매거진이 선정한 가장 섹시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프랑스 르몽드로부터 생존해있거나 이미 타계한 모든 바이올리니스트 중 자유와 존재감, 상상력을 모두 갖춘 매우 드문 연주자라는 극찬을 받은 로랑 코르샤는 클래식계의 정통성과 함께 바흐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한 콘서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랑 코르샤와 함께 프랑스 및 유럽 전역에서 4년째 함께 연주무대를 가져오고 있는 피아니스트 변애영은 깊은 울림과 섬세한 터치로 가진 피아니스트로 현재 파리 샤를레 극장, 마씨 오페라 등에서 오페라 코치로 활동하고 있으며 파리 국립음악원 어시스턴트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프라노 엄남이 제8회 독창회

일 시 4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우리아트 920-9545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엄남이는 그동안 일곱 차례 독창회를 비롯해 금정수요음악회, PBC 초청독창회, 그랜드오페라단 갈라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밤의 여왕 출연 YWCA 환경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엄남이는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 강사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코지판투테’ 중 ‘No, no, no, che non sei capace’

모차르트/신이여 제 얘기를 들어보소서

바흐/칸타타 제21번 중 ‘탄식, 눈물, 슬픔, 근심’

김순남/산유화

안정준/아리 아리랑 등

- 피아노/이승윤(부산시립합창단 반주자)
- 사회 및 해설/이현서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Ⅶ

일 시 4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약성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의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일곱 번째 무대.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그가 이끄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준높은

연주로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도 환희와 낙관적인 분위기가 가장 충만한 ‘교향곡 제7번’과 피아노 독주의 화려한 기교로 ‘피아노를 위한 관현악곡’으로 불리는 쇼팽 ‘피아노협주곡 제1번’을 차례로 피아니스트 박진형과 협연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쇼팽/피아노협주곡 제1번

베토벤/교향곡 제7번

- 지휘/금난새
- 협연/피아니스트 박진형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49회 정기연주회 Tchaikovsky & Dvorak

일 시 4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2323-6589, www.neophil.org



지난 2009년 창단된 후 폭넓은 활동을 펼쳐오며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고 있는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홍성택이 지휘하고 현재 서울바로크합주단, 금호아트홀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우면서 강렬한 차이콥스키와 드보르작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차이콥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드보르작/교향곡 제8번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3 오페라 이야기 II

일 시 4월 25일 수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2018년 두 번째 무대.

‘오페라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19세기 전반 오페라를 대표하는 ‘벨칸토 오페라의 대가’ 도니제티로, 조윤범의 해설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봉미의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소프라노 박현주, 테너 조현광, 바리톤 박대용, 베이스 한혜열의 협연으로 도니제티의 대표적인 오페라 ‘사랑의 묘약’,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6회 정기연주회 國樂, 4월에 부르는 봄의 노래

일 시 4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무르익는 봄기운을 국악의 신명으로 노래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6회 정기연주회 ‘國樂, 4월에 부르는 봄의 노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홍희철이 지휘하고 수석지휘자 이정필의 사회, 거문고주자 이대하, 소프라노 박은주,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예술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패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국악과 양악의 성악을 대표하는 소리꾼과 성악가, 합창단이 출연,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지는 경쾌한 노래로 봄의 흥취를 전한다.

프로그램

조석연/국악관현악 ‘거문[부산초연]

신주연/거문고 협주곡 ‘비상[부산초연]

박경훈/국악관현악 ‘서경별곡[부산초연]

이원주/베를레 노래

루이지 덴자/푸니쿨리 푸니쿨라

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령’

박범훈/사물과 연회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류찬미 피아노 독주회

일 시 4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류찬미 010-5103-7322



브니엘예술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도미, 미국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 음대를 거쳐 루즈벨트대학교 음대, 서던 메소디스트대학교 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류찬미 독주회.

류찬미는 미국 유학 중 미국 중부를 대표하는 실내악그룹 Chicago Chamber Musicians와 함께 연주했으며 같은 해 Chicago College of Performing Arts Concerto Competition에서 우승, 이듬해 CCPA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류찬미는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프랑스 모음곡 제2번 다단조 BWV 813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바장조 작품 10 제2번
쇼팽/발라드 제3번 내림가장조 작품 47
그라나도스/교예스카스 작품 11 '사랑의 속삭임'

한울림합창단 제40회 정기연주회

일 시 4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한울림합창단 010-6252-0019



지난 1978년 창단 후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혼성합창단인 한울림합창단의 정기연주회. 2005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한울림합창단은 그동안 '다시 부르는 겨레의 노래'로 전국 5개 도시 순회연주회를 비롯해 창작연가곡 '아름다운 부산', 윤이상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조연 주관, 광복 60주년 기념 아시아 한마당, 한형석 항일음악회(중국 북경 국립중앙음악원), 한·일 교류음악회(후쿠오카), 작곡가 변훈 추모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상임지휘자 김창돈이 지휘하고 서정적인 음색으로 섬세한 음악적 표현과 정확하고 깨끗한 발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카운터테너 조요한이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에서부터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가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창돈 ● 특별출연/카운터테너 조요한

더울림과이어 창단연주회 울림을 노래하다

일 시 4월 28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우리아트 920-9545



지난 2016년 11월 10일 창단한 혼성 아마추어 합창단인 더울림과이어 창단연주회. '소리의 울림', '영혼의 울림', '소통의 울림'이 어우러져 하나의 깊은 울림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기 위해 매주 연습을 통해 그 실력을 쌓아온 더울림과이어는 창단 후 세월호 추모음악회, 더울림 가족음악회, 부산합창제, 마음항기 병원 초청 찾아가는 음악회, BNK 기업 행사 등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합창연합회 회장, 무지카 아트를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전상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창작합창곡에서부터 민요,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전상철 ● 피아노/최지선
- 특별출연/연우합창단(지휘/엄정행), 해림소리모아합창단(지휘/이현성)

이요한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4월 28일 토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이요한 010-7477-7041



부산예고 재학 중 도독, 뤼벡 국립음대에서 솔리스트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브레멘 국립음대에서 Master과정을 이수한 피아니스트 이요한 귀국 피아노 독주회.

마요르카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이요한은 그동안 쉘레스비히 뮤직페스티벌, 메켄부르크 포어폼텐 뮤직페스티벌, 오버스도르프 뮤직페스티벌, 오이텐 솔로스캄머 뮤직페스티벌에 참가했으며, 세계적인 클라리네티스트 Taira Kaneko, Amayllis Quartett's Gustav Frielinghaus등과의 듀오연주를 통해 반주, 실내악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았다. 이요한은 현재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롯데시 서거 150주년 기념 롯데시 오페라 축제 부산 성악가 페스티벌

일 시 4월 29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 15만원,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의 솔오페라단 공연기획팀 1544-9373



오페라 부파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비롯해 신데렐라, 세미라미데, 이탈리아의 터키인, 윌리엄 텔 등 롯데시가 남긴 걸작 오페라를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톡톡 튀는 음악과 능청스럽고 재미있는 작품들로 가득한 롯데시의 작품들을 통해 오페라에 보다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다.

- 예술 총감독/이소영
- 소프라노/김경희, 김성은, 박은주, 박현정, 구민영, 박현진, 왕기현, 김유섬
- 메조소프라노/박소연
- 테너/김지호, 장진규, 양승연, 조윤환
- 바리톤/박대용, 조현수, 윤오건
- 베이스/김정대, 김태경, 권영기

연극 '정과정'

일 시 4월 29일 일요일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극단 비문사 554-8209



2017 부산 브랜드콘텐츠 선정작이자 2018 제36회 부산연극제 경연 출품작인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비문사)의 '정과정'. 작가가 알려진 유일한 우리말 고령가요인 '정과정곡(鄭瓜亭曲)'은 고려 의종 때 동래현으로

유배 온 정서(鄭徐)가 자신을 다시 부르겠다는 임금과의 약속을 기다리며 정자를 짓고 오이를 심으며 스스로 호를 과정이라 지었으나 끝내 임금의 부름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임금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지은 노래로, 현재 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54호로 지정되어 있다.

- 역사 속 정과정곡을 현대적 국악으로 탄생시킨 '정과정'은 부산의 역사와 전통을 예술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연극과 음악, 미디어 파사드를 결합한 새로운 무대연출로 관객들과 만난다.
- 작, 연출/최은영

음악 | Music

김하람, 김관우 듀오 리사이틀

일 시 4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김관우 010-5024-7943



부산에서 촉망받는 영
 아티스트 김하람, 김관
 우의 첫 번째 듀오 리사
 이틀.

풍부한 감성으로 노래
 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김하람과 사색
 하는 음악을 목표로 울
 림있는 소리를 내는 김
 관우의 바이올린 듀오무

대를 통해 성장해가는 차세대 연주자들의 음악세계
 를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8번 사장조 작품 30
- 브람스/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사장조 작품 78
- 브람스/스케르초 다단조
- 라벨/차간느 작품 76
- 사라사테/구노의 파우스트 주제에 의한 환상곡
 작품 제3번
- 사라사테/나바라 작품 제33번
- 피아노/노은주

이은옥 바이올린 리사이틀 소나타의 밤

일 시 4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 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다
 양한 무대를 통해 국제적
 의 탁월함과 출중한 연주
 실력을 보여준 바이올리
 니스트 이은옥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도르트문트음대를
 졸업하고 오케스트라 수
 석, 챔버앙상블 리더, 그

리고 솔리스트로 끊임없이
 청중과 교감해온 이은옥
 은 지난 2011년 부산, 경남의
 젊은 연주자들과 센트 챔
 버 소사이어티를 창단, 다
 양한 형태의 실내악 연
 주를 기획하고 연주해오
 고 있다.

이은옥은 현재 동의대학교
 겸임교수로 있으며 동아대
 학교, 부산예총·교에 출
 강하고 있다.

프로그램

- 슈만/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가단조 작품 105
- 드뷔시/바이올린 소나타 사단조 L, 140
-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바단조 작품 24 '봄'
- 피아노/성민주

김미진 두 번째 발표회 박동실제 심청가

일 시 4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전석 1만 원
문의 김미진 010-8857-0714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이자 경상북도 무형
 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국가무
 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전수자로 있는
 소리꾼 김미진의 '박동
 실제 심청가' 첫 번째 무
 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통 예술원, 부산대학교 일

반대학원 한국음악과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김미
 진은 제25회 전국국악경
 연대회 명창부 최우수상,
 제15회 부산국악대전 일
 반부 차하, 제5회 흥성가
 무악전 국대회 일반부 가
 야금병창 대상, 제16회
 공주 박동진 명창·명고
 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
 원(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
 다.

이번 무대에서는 초
 앞부터 심청사가 선인
 들을 따라 가려는 심청
 이를 만류하는 대목까지
 들려준다.

- 교수/이치중(일통고법보존회 경남지회장)
- 사회/권성택(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성악단 예술감독)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 원, 청소년 5천 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4일(643회) 트럼펫 색소폰 듀오 리사이틀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트럼펫터 박승훈,
 색소포니스트 서영교의
 듀오 무대.

박승훈은 영남대학교
 음악대학과 퀸즈 칼리
 지-아론 코플랜드 음악
 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하
 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

단 단원으로 있으며, 서영교는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과 프랑스 안시 음악원 전문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부산예고 등에 출강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트럼펫, 색소폰
 앙상블을 위해 색소폰&트럼펫을 위한 기존 곡과 두
 악기를 위해 편곡된 작품으로 색다른 무대를 선사
 한다.

- 피아노/류성직 ● 퍼쿠션/양진일

11일(644회) 신민속악회 바디 '산조와 시나위'
 전통 민속음악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2016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대
 중과 소통할 수 있는 국
 악의 현대화를 지향해
 온 신민속악회 '바디'의
 무대.

'바디'는 제자가 스승으
 로부터 전승받은 소리
 에 자신의 음악적 색을
 입혀 절묘하게 다듬어
 놓은 소리라는 뜻. 신민
 속악회 '바디'는 다소 이
 해하기 어려운 전통 민
 속음악을 주제로 '바디'
 만의 색깔로 절묘하게
 재해석하여 관객들께
 들려주고 있다.

- 연주/거문고 황한열, 대금 김영산, 해금 조희규, 피아노 이창희, 아쟁 정선경, 장구 장주영

18일(645회) 움챔버오케스트라 'Unique Moment UM Chamber Orchestra'



바로크에서 현 시대의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
 의 음악을 연구, 연주하
 기 위해 결성된 움챔버
 오케스트라의 무대.

특히 20세기 음악에 관
 심을 가지며 청중과 함
 께 호흡할 수 있는 독특
 한 기획으로 관객과 만
 나 온 움챔버오케스트

라는 국제신문 유 콘서트, 스페이스 움 목요음악회
 200회 기념음악회, 부산챔버뮤지컬페스티벌, 한·러
 몽골 수교 25주년 기념 국제교류음악회 등 다양한 무
 대에 서왔다.

25일(656회) 로베르트 슈만 '사랑의 노래'



서울대학교 음대와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MBC 라디오
 'FM 가정음악실' 김현애
 의 튜브박스를 진행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현애,
 서울대학교 음대와 독일
 뒤셀도르프 음대, 데트

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라우지카 앙상블 대표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진성, 부산대학교 예술대학과 독
 일 베를린 국립음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
 자과정을 졸업하고 동래중앙교회 지휘자로 있는 테
 너 김현식, 이화여대 피아노과와 오스트리아 잘츠부
 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
 에 서온 피아니스트 성민주가 함께 하는 슈만의 밤.
 슈만의 대표곡인 '여인과 사랑의 생애', '시인의 사랑'
 전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매주 토요일 오후 3:00(28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A석 1만원, B석 8천원, 만 18세 이하는 무료관람)
문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매주 토요일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인 감상할 수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 '행복한 국악나무'.

2018년 올해 '행복한 우리문화, 가까이 더 가까이, 행복으로 가꾸는 국악나무'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되는 '행복한 국악나무'에서는 유네스코문화재, 교과서 속 음악과 춤, 영남의 풍류 등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우리나라 전통음악과 춤의 멋, 흥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7일 교과서 속 음악과 춤
수제천, 산조, 박집무, 가야금병창, 포구락, 경기민요

14일 영남의 풍류를 따라
박대성류 산조합주, 가곡, 수영아류 중 '영감할미과장', 진주교방굿거리춤, 기장오구굿 중 '지옥가', 동래학춤/한량무

21일 창작으로 미래의 전통을 만든다
실내악 '다섯악기를 위한 저녁노래', 부채춤, 거문고 중주 '일출', 창작판소리 '제비노정기', 가야금독주 '침향무', 꽃나무 풍장놀이

2018 두레리움 명품 클래식 시리즈 1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4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arium.org



북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17 제15회 반클라이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부산 첫 독주회.
미국 커티스음악원, 줄리어드음대, 메네스음대를 거쳐 현재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 재학중인 선우예권은 18세에 프라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무려 8회에 달하는 국제 콩쿠르 1위 입상으로 현재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그레인저/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사랑의 듀엣
슈베르트/4개의 즉흥곡 D.935 작품 142
브람스/피아노소나타 제2번 올림바조 작품 2
리벨/라 발스 작품 72

전은지의 프로젝트 앙상블 플루트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4월 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전은지클래스 010-5327-6025



오스트리아 부르크엔란트(Burgenland) 주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과 악기 교육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초빙교수, 동의대학교 및 동대학원 외래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플루티스트 전은지를 리더로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수석, Cincy-A 피아노트리오, 앙상블 Art-Q, (사)The Soloists 멤버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서영희, 앙상블 The Blossom 앙상블, 앙상블 Art-O, SOMBI 트리오 멤버로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민, 선화예술중·고등학교, 경남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첼리스트 최정윤, 부산페스티벌 기타앙상블 지휘자, 폴리포니기타듀오 멤버로 있는 기타리스트 김경태가 활동하고 있는 프로젝트 앙상블 플루트(Flute'z)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플루트 선율과 현악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실내악곡을 들려준다.

슈베르트 서거 190년 기념
제52회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Liederabend

일 시 4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독일가곡연구회 010-5606-9193



지난 1987년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나라에서 유학한 음악인들로 창단한 독일가곡연구회의 정기연주회.

독일가곡연구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통해 독일가곡을 보급하고 마스터클래스를 개최, 후학 양성에도 힘써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곡의 왕'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을 기념해 연가곡집 '백조의 노래' 전곡을 비롯해 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김효주, 장은영, 강소영
- 테너/김준연, 최홍희, 조윤희
- 바리톤/최강지 ● 메이스/조창현
- 클라비어/김성희, 김경미, 박필은, 박미은

2018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일 시 4월 10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재)영화의전당이 마련하는 테마가 있는 아침 음악회.
올해는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영화음악 감독,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국내 음악계에서 감성 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 김정범의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콘서트로 관객들과 만난다.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4월 마티네콘서트는 영화 속 음악과 이야기로 떠나보는 뉴욕 여행으로, 무일푼 뮤지션의 고민을 담은 영화 '인사이드 르윈'에 흘러나오는 포크·컨트리 음악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감상하며 영화의 배경이 되는 맨해튼 소호를 중심으로 영화 속 실제 등장하는 찻집, 클럽 등 맨해튼의 문화적 명소를 함께 탐방한다.

최차옥의 국악꽃 향기

일 시 4월 12일 목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초대
문의 송서울창보존회 부산도지부 512-3001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호 송서울창보존회 부산지회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최차옥의 국악한 마당.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호 예능보유자 유창 명창을 통해 송서울창을 전승, 보급하고 우리소리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송서울창에서부터 민요, 판곡, 태평무, 마당놀이 등 가무악의 멋과 흥이 넘치는 우리소리 한마당으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금사정사(출연/유창, 최차옥)
명심보감 삼설기(출연/옛샘소리단)
비나리, 회심곡(출연/옛샘소리단)
마당놀이 '팔도유람 떠나보세'(출연/김원희, 류체명, 윤현희, 손영옥, 김민경, 김혜진) 등
● 특별출연/유창

Pour le Piano 피아노를 위하여

일 시 4월 14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Pour le Piano 010-8601-4945

지난 2012년,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한은아와 그의 제자인 박수진, 김현정, 이해민, 이성령, 이민하, 김성희, 이은정으로 결성된 '푸르 르 피아노(Pour le Piano)'의 무대. 그동안 두 차례 부산마루음악제 프린지콘서트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Pour le Piano'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피아노 듀오연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 J. 스트라우스 2세/오페레타 '박쥐' 서곡
- 생상/죽음의 무도 작품 40
- J. 스트라우스 1세/라데츠키 행진곡
- 슈베르트/군대행진곡 작품 51 제1번 등 수록
- 해설/조경은



조무종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4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및 전문사 과정,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솔로 전문과정, 독일 에센 폴크방 예술대학 최고 연주자과정, 독일 에센 폴크방 예술대학 실내악 전문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조무종은 그동안 트

로이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AGM 챔버 오케스트라, 뉴프라이밍 오케스트라 객원악장, Ensemble Cosmopolitan 악장을 역임했으며 독주회를 비롯해 실내악 및 듀오 리사이틀, 카메라타 부산, 더 솔로이스츠 카메라타, 움 챔버 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조무종은 현재 드림문화오페라오케스트라 악장,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 트리오 피아체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 피아노/김미현

박윤정 피아노 독주회

일 시 4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박윤정 010-9878-1973



한양대학교 피아노과와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전문 연주자과정, 이탈리아 로마 아르츠 아카데미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주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한국창작가곡협회 회원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박윤

정 독주회

지난 2006년 귀국 후 아자무소오페라단 오페라 '여자는 다 그래', '박쥐', 가요오페라단 '라보엠'의 음악코치를 역임한 바 있는 박윤정은 그동안 서울과 부산, 이탈리아 로마, 독일 에센, 도르트문트 등 국내외 유럽에서 아홉 차례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박윤정은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고신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예술고등학교 실기강사로 출강 중이다.

프로그램

- 하차투리안/토카타 내림나단조
- 쇼팽/알츠 작품 34 제3번 바장조
- 쇼팽/알츠 작품 64 제1번 내림라장조 등

제34회 프롬나드 콘서트 새봄을 열다

일 시 4월 26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4

기업의 리더들이 릴레이 후원하며 부산 경제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프롬나드 콘서트' 4월 무대.

오충근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부산 출신으로 미국 인디애나음대 학사, 줄리어드음대 석사, 맨하탄음대 한국인 최초 바이올린 박사학위를 취득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악장 김주영의 협연으로 새봄의 흥취를 이룬다.

프로그램

- 비발디/사계 제1번 마장조 '봄' 작품 269
- 슈트라우스/알츠 '봄의 소리' 작품 410



심하정·이혜경 피아노 듀오 콘서트

일 시 4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심하정 010-3284-9428



부산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심하정, 이해경의 듀오 무대. 심하정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뉴욕주립대학 펠처스칼리지 석사 및 연주자과정, 뉴저지 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American Prolega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이해경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0회 부산피아노듀오콩쿠르 전체 1위, 제3회 부산 우수신인피아노콩쿠르 신인부 1위, 제7회 한국피아노학회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송니움 앙상블 리더, 송블리 트리오 멤버, 플레이어즈 백 전속 피아노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서거 190년과 드뷔시 서거 100년을 맞이하여 두 작곡가의 작품과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은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제10회 정안선 피아노 독주회

일 시 4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정안선 010-2545-2291



피아니스트이자 첼발리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안선 피아노 독주회.

신라대학교 음악과 및 동대학원, 독일 아헨 국립음대를 졸업한 정안선은 그동안 피아노 독주회 10회, 첼발로 연주회 5회를 비롯해 독일 오스

나부룩 오케스트라, 폴란드 첸트호바 오케스트라, 루마니아 박하우스 필하모니, 콘체르탄테 오케스트라, 일본 텔레칸 실내악단,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예프 필하모니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왔으며 마루국제음악제, 부산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정안선은 현재 부산예고, 부산여자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국내 최초로 한 무대에서 같은 곡을 피아노와 첼발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

일 시 4월 28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 010-8633-4792

부산, 경남지역의 플루트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플루트 연합의 열정 넘치는 음악인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들기 위해 매년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다. 'Suite Festival'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모음곡, 영화 OST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캔디드' 서곡, 래그타임(Ragtime),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 Hooked on the classics, Galway Inatistic,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오페라의 유령

2018 솔로이스츠 플루트콰이어 정기연주회

일 시 4월 29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솔로이스츠 플루트콰이어 010-4554-7777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과 강의를 펼치고 있는 젊은 플루티스트로 구성된 솔로이스츠 플루트콰이어의 2018년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플루트로 구성된 연주자들이 귀에 익은 주옥같은 클래식과 인기있는 곡을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프로그램
헨델/왕국의 불꽃놀이
오펜바흐/천국과 지옥
비발디/사계 중 '봄' 등 수곡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II

일 시 5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매 연주회 때마다 감동적인 연주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 독주회. 피아노의 신약성서라 불리는 베토벤 소나타 전곡(32개) 연주회 두 번째 무대로, 지난 무대에서 베토벤의 명확한 해석과 빛나는 음악성으로 청중

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박정희는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 석사 및 Graduate Diploma, 론지음악원 Artist Diploma, 보스턴대학교 피아노연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소나타 제1번, 제2번 '장송 행진곡', 제3번, 그리고 제14번 '월광' 등 4곡을 통해 베토벤의 고뇌와 삶을 그녀만의 해석으로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연극 | Play

극단 새벽 창작 부조리극 옥탑방 두 여자

일 시 3월 8일(목)-5월 19일(토) 매주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수요일 공연 없음)
효로민락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 5천원(17세 이상 관람)
문의 극단 새벽 245-5919



지난해 11월 초연무대를 통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낯설고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연극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극단 새벽 '옥탑방 두 여자'. '삶의 연극화, 역사의 연극화'를 모토로 연극인 공동체 극단 새벽을 창단하고 지난 34년간 관객들과 부대끼며 달려온 연출가 이성민이 세상과 연극작업에 대해 품은 회의감에서 출발, 창작한 '옥탑방 두 여자'는 두 연극배우의 하루에 빚대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마주하는 한편, 세상의 변화와 역사의 진보를 꿈꾸는 사회과학적 담론이 무의미해진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철학적 연극이다.

- 작, 연출/이성민 ● 출연/유미희, 변현주

연극 '봄이 오는 소리'

일 시 3월 15일(목)-5월 26일(토) 수-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화요일 공연 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공간소극장 611-8518



마당극의 해학적 요소를 차용, 우리들 삶의 터전과 이웃, 가족의 소중함에 공감하며 그 의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가슴 따뜻한 가족 드라마 '봄이 오는 소리'. 흥길동이 된 착각에 빠져 사는 차매 노인 길동은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온종일 흥길동 놀이에 여념없고 엄마 손애와 아들 중육은 그런 아빠를 찾아 매일 동네를 헤매고 다닌다. 그런 어느 날 아들 중육의 배 다른 동생이자 길동의 딸인 지영이 나타나 길동의 사라진 재산을 찾기로 하면서 길동의 재산을 찾으려는 가족들의 좌충우돌 한바탕 소동이 펼쳐지는데...

- 작, 연출/전상배
- 출연/황미애, 서원오, 박수민, 하보배, 이형석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

일 시 3월 15일(목)-6월 17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요일 오후 2:30, 5:00, 7:3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모든 연인들을 사로잡는 리얼공감 로맨틱 코미디극 '연애하기 좋은 날'.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지후는 같은 병실에 전 여자친구 시연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지만 그녀는 늘 떠날 연유에서인지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지후는 자신이 과거 어떤 남자친구였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연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 달콤했던 연애를 떠올리며 추억을 되새기던 지후는 그녀의 기억 속에 자신이 못된 '남친'을 넘어서 '쓰레기'로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그 순간 시연의 기억이 돌아온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기막힌 반전이 숨겨져 있으니...

국민연극 라이어 1탄

일 시 3월 16일(금)~5월 13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속고 속이는 우리의 인간사를 통렬한 웃음으로 선사하는 레이 쿠니의 대표작 '라이어' 1탄. 마음 약한 한 남자의 거짓말로 인한 하루 동안의 기막힌 해프닝을 그린 연극 '라이어'는 지난 1998년 국내 초연 이후 35,000회 공연,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국민연극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뎀블던에는 메리, 스트리트행에는 바바라, 두 부인을 두고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 바쁘게 이중 생활을 하는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 그의 완벽한 일정은 가벼운 강도 사건에 휘말리며 엇갈리기 시작한다. 메리 집에는 트루트 형사가, 바바라 집에는 포터 형사가 찾아오고 존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구 스텐리와 함께 하나씩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로 인해 상황은 더욱더 꼬여만 가는데...

연극 '쌈이 필요해'

일 시 3월 23일(금)~5월 27일(일)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수요일 공연 없음) 부산메트로홀(구 AN아트홀 광안)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영화 속의 로맨스는 잊어라, 리얼리티 현실 반영 로맨스극 '쌈이 필요해',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모든 게 잘난, 그러나 연애는 귀찮은 연애고자 이선균 팀장, 질나고 똑똑해서 안티도 많지만 알고 보면 허술한 김정화 편집장. 이들 앞에 신입사원 이니영과 김석원이 나타나면서 잊고 있었던 연애감정이 싹트는데... 잡지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연극 '쌈이 필요해'는 연애불능자의 연애극복기를 통해 전생터 같은 사회에서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나온 리얼 현실연애를 그린 로맨스극이다.

가족뮤지컬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

일 시 3월 3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4월 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온누리 1661-6702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원작으로 한 가족 뮤지컬. 아주 중요한 회사에 다니는 아빠와 아주 중요한 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집안일은 모두 엄마 몫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힘들어하던 엄마는 '너희들은 돼지야'라는 쪽지를 남기고 결국 집을 나가버린다. 돌봐 줄 사람이 없어진 아빠와 아이들은 조금씩 이상하게 변하는데, 과연 이들은 엄마 없이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을까? 가정에서 엄마가 짊어지고 있는 역할과 희생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낸 '돼지책'은 온가족이 함께 즐기며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다.

연극 '용서 받은 시간'

일 시 4월 6일(금)~4월 15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 없음)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전석 3만원(중고생 1만 5천원, 대학생 2만원, 70세 이상 1만원)

문의 아트레볼루션 010-4820-1862



아버지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해 깨진 한 가정의 평화, 형제는 어린 시절 목격한 아버지의 실수를 가슴에 담은 채 소년으로 성장한다. 오랜 세월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길어진 원망의 시간 속에 깊어만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단절되며 서로를 향한 오해와 증오는 커져만 가는데... 과연 이들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연극 '용서 받은 시간'은 아버지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깨어진 가정의 평화와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원망, 용서를 그리고 있다.

● **작, 연출/박정우**

● **출연/박찬영, 김범수, 정호준, 박준성, 채민수, 김정환, 최호윤**

어린이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부산앵콜'

일 시 4월 7일~8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총) 5만 5천원, R석(2층) 4만 4천원(부산 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이골림부산 1644-5764



전세계 1억 5천만 유저가 열광하는 유아동 교육 브랜드 핑크퐁을 가족뮤지컬로 탄생시킨 '핑크퐁과 상어가족'. 핑크퐁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5개 언어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240만 명의 구독자, 누적 조회수 22억 회에 이르는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다. 가족뮤지컬 최초로 화려한 색감의 LED를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 뮤지컬로 선보이는 '핑크퐁과 상어가족'은 국민동요 '상어 가족'의 다양한 버전뿐만 아니라 뮤지컬 편곡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화려해진 핑크퐁 동요를 만날 수 있다.

2018 '버블매직쇼- 부산'

일 시 4월 7일 토요일 오후 1:00, 3:00 부산북구문 화방상센터, 4월 8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부산다누리센터

입장료 전석 2만원(예매시 50% 할인)

문의 극단 파랑새 010-9060-1226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상의 버블과 신기한 마술쇼 '버블매직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재미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버블매직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비눗방울 세계와 눈을 땔 수 없는 신기한 마술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프로그램

버블쇼/맨손 버블쇼, 밧줄 버블쇼, 도너츠 만들기, 비눗방울 탁구치기, 도구로 큰 비눗방울 만들기, 해파리 만들기, UFO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비눗방울 휘날래 매직쇼/비둘기 마술, 꽃 마술, 봉 마술, 공중부양, 와이어 마술, 순간이동마술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가족뮤지컬 '팅커벨 요정과 피터팬'

일 시 4월 2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3:30
북구문화회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예매시 30% 할인)

문의 문화예술기획 세종 010-2358-1828



용감한 어린이들의 친구 피터팬과 귀엽고 깜찍한 요정 팅커벨이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팅커벨 요정과 피터팬'.

일 때문에 늘 바쁜 부모님을 둔 웬디에게 피터팬이 찾아오고 꿈과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로 여행을 떠난다. 웬디는 네버랜드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어드엄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어린이라는 존재를 시그럽고 귀찮게 여기는 후크선장은 그들을 쫓아내려 하는데... 과연 피터팬은 후크선장과 그 부하들을 물리치고 웬디와 어린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네버랜드를 지키기 위한 피터팬 친구들과 후크선장의 흥미진진한 결투, 빠르고 경쾌한 음악과 신나는 춤, 생동감 있는 무대가 어린이들을 꿈과 호망의 세계로 안내한다.

무용 | Dance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8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일 시 4월 3일(화)-13일(금) 오전 11:00(주말 공연 없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1천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2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부산시립무용단의 눈높이 프로그램 '춤추는 동화' 2018년 무대.

극적인 이야기 구성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춤사위로 풀어내는 '춤추는 동화'는 매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인무로 공연 때마다 매진사례를 낳고 있다.

관객인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올해 무대에서는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무대에 옮겨 어린이들과 함께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콘서트 | Concert

커피소년 4개 도시 투어콘서트 '낭만'

일 시 4월 7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5만 5천원

문의 (주)로스튜디오 031-969-9192

DAVACHI LIVE TOUR '8&10'

일 시 4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12만 1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인 4매에 한해 10% 할인)

문의 (주)윌드소마켓 1566-5490

2018 조항조 & 장윤정 콘서트

일 시 4월 2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KBS부산홀

입장료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A석 7만 7천원

문의 (주)WSM 1566-5490

영화 | Movie

세계영화사의 위대한 유산
월드시네마 XV

일 시 3월 23일(금)-4월 22일(일)매주 월요일 상영
없음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입장료 전석 6천원(경로, 청소년 4천원)

문의 영화의전당 780-6000

193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영화사의 빛나는 걸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월드시네마 열다섯 번째 상영전.

2018 아트와 영화 : 예술을 봄

일 시 4월 20일(금)-22일(일)상영시간 홈페이지 참조
영화의전당 중극장, 하늘연극장, 야외극장

입장료 일반 7천원, 청소년 6천원(야외상영작 무료)

문의 영화의전당 780-6000

영화 '에곤 쉐레:욕망이 그린 그림', '파울라', '그레이트 뷰티', '미드나잇 인 파리', '빅 아이즈', '반 고흐:위대한 유산', '시크릿 뮤지엄&위대한 낙서전' 등 문화예술을 소재로 한 7편의 작품을 소개하는 (재)영화의전당 기획전 '2018 아트와 영화 : 예술을 봄'.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적과 흑(The Red and The Black)

일 시 4월 17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부산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영화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부산영화인협회 서영조 회장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을 소개하며 관객들이 놓친 장면 속에 숨어 있던 의미와 이미지들을 짚어준다.

4월에는 왕정복고 시기의 프랑스 사회를 배경으로, 출세와 사랑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던 한 청년의 삶과 죽음을 그린 영화 '적과 흑(상영시간 113분, 12세 관람가, 클로드 오텍 라라 감독, 제라르 필립, 다니엘 다리유 출연)'을 상영한다.

행사 | Event

김옥균의 힐링클래식 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전 11:0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

수강료 월 4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FM 목요일음악감상회를 기획·연출한 김옥균(시인, 음악치료사) 전 MBC PD가 진행하는 클래식 영상음악 해설감상회.

내 삶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클래식음악을 만나는 시간으로, 최신 해외 클래식음악 연주회 실황을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고품질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슈베르트 교향곡 제5번 외 카멜라 안드레아 바르카 뮤지컬 '미스 사이공' 공연 실황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블롬 슈테트 지휘)
홀스트 관현악모음곡 '축성'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초 외 니콜라이 즈나이더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4월 아카데미

일 시 2일(월), 3일(화), 9일(월), 10일(화), 12일(목), 16일(월), 17일(화), 23일(월), 24일(화), 25일(수), 30일(월)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2일(월) 오후 7:30 하이쿠로 보는 일본의 미학(5)
말하지 않고 말하는 미완의 문학

하이쿠의 신화성·애니메이션, 쟁구는 못말려
● 강사/안수현(문학박사·문학평론가·부산대 한국 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3일(화) 오후 7:30 스페인 내전과 헤밍웨이 그리고 스페인의 예술가들

● 강사/심진호(신라대 교수)

9일(월) 오후 7:30 쓰레기와 인문생태학 영화, 아바타

● 강사/박기철(경성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10일(화) 오후 7:30 세계 미술 축제의 현장(2)
예술로 진화하는 홍콩·에프터 아트페어 홍콩

● 강사/강금주(갤러리 이듬 대표 부산화랑협회 회장)

12일(목) 오후 2:00 예술 영화와 만나는 시간(4)

영화속을 건다. 브레이킹 더 웨이브

● 강사/김문홍(문학박사, 연극평론가, 극작가, 부산공연사연구소 소장)

16일(월) 오후 2:00 컬러 앤 필름
물입의 색, 색으로 다시 만나는 영화, 녹터널 애니멀스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 전문가)

16일(월) 오후 7:30 곡근수의 클래식투어(18)
음악과 함께하는 영화, 더 콘서트

● 강사/곡근수(음악평론가)

17일(화) 오후 7:30 예술과 사유(16)
철학자의 순례길, 터키 리키안웨이(2)

●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내서재 대표)

23일(월) 오후 7:30 시공과 우주, 그리고 중력
영화, 컨택트

● 강사/이창환(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24일(화) 오후 7:30 패션, 영화를 스타일링하다(7)
지방시를 추억하며...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사브리나

● 강사/진경옥(동명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패션 디자이너)

25일(수) 오전 10:30 랜선으로 떠나는 문화산책(3)
팟캐스트 김영하의 책읽는 시간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 강사/봄비(카프카의 밤 저녁지기)

30일(월) 오후 7:30 인터넷 시대의 니체

● 강사/이왕주(부산대 명예교수)

정두환의 화요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음악은 언어다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 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일정

3일(649회) 음악은 어떠한 언어인가?

10일(650회) 작곡가의 언어

17일(651회) 연주자의 언어

24일(652회) 이달의 책읽기 <아몬드>(손원평, 창작과 비평, 2018년 원복원 선정도서)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일 시 4월 5일(목), 10일(화), 16일(월), 20일(금), 23일(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5일 미술특강-미술작품으로 보는 인간의 삶 2 '자연과 인간'
18세기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미술작품을 통해 보여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더불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연과 미술작품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좌.

● 강사/이은미(뮤지엄 에듀케이터)

10일 곡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28강 '차이콥스키 인생과 작품세계'
러시아의 향토성과 서유럽 음악의 메인 스트림을 자신의 음악 속에 융합시켰던 차이콥스키의 인생과 작품세계를 탐구해보는 곡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 강사/곡근수(음악평론가)

16일 발레가 있는 무대 제4강 '발레이야기 4 : 발레 뤼스(Ballet Russes)'

20세기 초 실험성과 전위성을 표방하며 모던 발레의 출발점이 되었던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의 발레단 '발레 뤼스(Ballets Russes)'의 예술적 근원을 살펴보고, 인간 내면의 표현적 욕구가 녹아든 주요 작품 감상과 창의적 움직임의 체험을 통해 초기 모던 발레에 담긴 인간학적 함의를 탐구해본다.

● 강사/노영재(무용학 박사)

20일 여행, 예술을 만나다 제3강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도시 바로셀로나'
스페인의 대표적인 도시 바로셀로나, 요즘 한국 여행자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도시로, 산이 있고 바다가 있으며 맛있는 음식과 활기찬 사람들로 부산과도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은 도시이다. 무엇보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이 가득 찬 이곳은 여행자들에게 최고의 추억을 선사한다.

● 강사/김성민(아트커뮤니케이터)

23일 색이 삶을 말하다 제14강 '세상 속의 색, 그 색속의 나, 패션으로 말하다'
생활 속에서 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써 보다 안정된 나로 이끄는 색의 힘을 만나게 될 시리즈 강좌로, '피겨의 여왕' 김연아의 감동적 연기와 함께 어우러진 그녀의 여러 의상에 나타난 배색관계를 살펴 보면서 생활 속 나의 패션에 응용할 수 있는 배색을 배워본다.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 전문가)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81회 시 낭송회

일 시 4월 24일 화요일 오후 6:30 오성병원 11층 대강당

입장료 무료

문의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감 & 藝感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청춘음악·민속춤 들어볼래?

일 시 4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www.bsart.or

부산예술회관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상설무대 '예감 & 藝感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올해 '예감 & 藝感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에서는 지역 민들의 예술문화 소양의 스펙트럼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장르간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선보인다. 4월에는 '청춘음악·민속춤 들어볼래?'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전시 | Display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사진전
사진으로 보는 근대 풍경

일 시 2017년 11월 21일(화)~2018년 5월 27일(일)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전시실
문의 부산시민공원역사관 850-606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부산박물관 소장 조선통신사 기록물

일 시 1월 9일(화)~5월 7일(월)
부산박물관 부산관 2층 미술실
문의 부산박물관 610-7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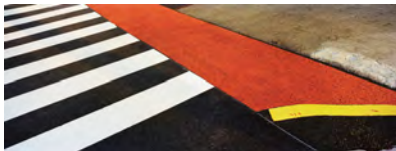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 중 부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공개하는 2018년 신수유물소개전.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조선통신사 공식 수행원들이 남긴 서화류 10점으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한·일간 평화구출과 문화교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부산 참견錄 2018
브뤼노 레끼야르 단편들

일 시 3월 10일(토)~5월 3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고은사진미술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사진가 브뤼노 레끼야르의 작품으로 마련하는 연례 기획적 '부산 참견錄 2018'. 브뤼노 레끼야르는 지난 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 공식행사이자 고은사진미술관이 파리의 죄드폼 국립미술관과의 교류전으로 진행한 '브뤼노 레끼야르, 형태의 시' 전시를 통해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소개된 바 있다. '부산 참견錄'은 매년 한국의 중견사진가들 중 한 명을 선정, 부산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기록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로 선보이는 10년 장기 프로젝트이다. 2013년 작가 강홍구를 시작으로 이번에 여섯 번째 작가로 선정된 브뤼노 레끼야르는 2017년 1월과 10월에 부산을 방문하여 도시 곳곳을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포착했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을숙도 '부산사랑 젊은작가 프로젝트 2018'

일 시 3월 19일(월)~4월 15일(일) 갤러리 을숙도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22



부산을 사랑하는 젊고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갤러리 을숙도의 프로젝트 기획전. 이번 기획전에서는 '부산을 사랑하는 젊은작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가 35명의 대표적 작품이 전시된다.

- 1부(3월 19일~4월 1일)/서수향, 원유진, 김승준, 김보경, 장유정, 정지혜, 황인지, 최지선, 최혜원, 유나킴, 정다솔, 김성수, 장상수, 이은정, 이민걸, 조민지, 오민지, 정영호
- 2부(4월 2일~4월 15일)/신소영, 박경미, 이호선, 이슬, 김승용, 김태형, 장건영, 이상호, 양나영, 김자현, 박중선, 박별이, 김기윤, 고은정, 강동현, 박지혜, 한송희

F1963 첫 기획전
JULIAN OPIE in BUSAN

일 시 3월 24일(토)~6월 24일(일) F1963 석촌홀
문의 F1963 756-1963, www.f1963.org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팝 아티스트 줄리안 오피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 'JULIAN OPIE in BUSAN'. 부산에서 열리는 줄리안 오피의 첫 번째 전시이자 F1963의 첫 기획전이기도 한 이번 전시에서는 줄리안 오피의 페인팅, 조형물 및 미디어 아트 작품 등 총 6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작품들은 줄리안 오피가 F1963를 방문한 후 받은 영감을 토대로 창작된 작품들로, 폐 공장을 문화 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해 산업 현장의 역사가 살아있는 석천홀 내부에는 다양한 크기의 공간들과 작품들이 위치해 관람객들이 각양각색의 규모들과 분위기들 사이를 오가도록 이끌 예정이다.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1
모던과 혼성 1928-1938

일 시 3월 16일(금)~7월 29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0-4241

나의 그림 쇼핑展

일 시 4월 4일(수)~4월 29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 참여작가/천경자, 김창렬, 이일중, 박서보, 문형태 등



이경미 개인전

일 시 4월 6일(금)~4월 12일(목)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타워아트갤러리 특별기획
2018 꽃그림전 '축제'

일 시 4월 17일(화)~4월 27일(금)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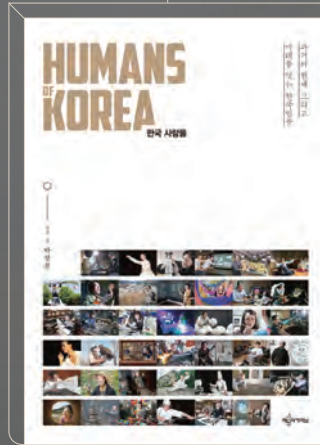


박현주 · 북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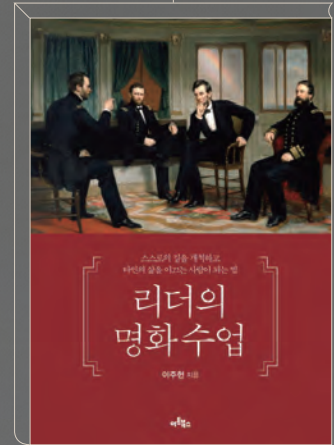
웃음의 현대사
김영주 지음 / 웨일북 / 384p / 1만 5천원

웃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심심하고 쓸쓸할까. 밝은 웃음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인기가 많은 건 우리가 늘 웃음을 찾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그런데 남을 웃기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나왔다. 자신에게 슬픈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의 코드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담은 책이다.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에도 마음을 달래주는 신파극이 있었고, 바로 어젯밤에도 일상의 피곤함을 씻어준 토크쇼가 있었다. 현직 방송작가인 저자가 쓴 이 책은 마치 방송국에 견학이라도 온 듯 웃음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세세하게 그려낸다. 배심룡을 자사의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 한 바탕 결투까지 벌였던 방송국 피디들, 무대의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져야 더 큰 웃음을 줄 수 있을지 연구했던 서영춘, 시대의 아픔을 개그에 녹여내고 유행어를 만들어냈던 개그맨들의 이야기는 흥미롭다. 이제는 짜여진 내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에 놓인 출연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능프로그램도 있다. 우리 국민과 함께해온 웃음의 역사를 만나보는 책이다.



HUMANS OF KOREA 한국 사람들
박상문 지음 / 예문아카이브 / 418p / 2만 8천원

우리 문화의 멋과 얼을 알리고 문화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고 있는 40인을 담은 휴먼 포토 다큐멘터리. 저자는 1983년 <서울신문>에 사진기자로 입사해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일했고, 현재는 중앙일보 영문일간지에서 사진담당 부국장으로, 현직 사진기자로 활약 중이다. 2004년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방문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한국 병사를 꺼내고 크게 웃음 짓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찍었던 기자이다. 저자는 10년 동안 총무로와 인사동, 계룡산, 안동 하회마을, 남해 외딴섬 독거혈 등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통과 현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도예가, 도자인형 작가, 소리 명창, 서예가, 목조각장 등 전통예술 장인과 음악평론가, 캘리그래퍼, 악기 제작자, 보디페인팅 아티스트, 정원 디자이너 등 현대의 장인들을 만나 그들의 사진을 찍었다. 장인들의 삶의 모습과 발자취를 촬영한 사진이 수만 장인데, 그 중에서 엄선한 250여 컷의 사진이 이 책에 실렸다. 우리 고유의 전통에 현대적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자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리더의 명화 수업
이주현 지음 / 아트북스 / 376p / 1만 8천원

미술 담당 기자, 학교재 관장, 미술평론가로 활동해온 저자가 그림에서 참된 리더의 모습을 찾아보는 책을 펴냈다. 서양미술에서 역사화는 주요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역사화는 주요 위인들의 삶과 투쟁을 화폭에 표현해왔는데, 그림으로 남은 위인들은 도전하고, 투쟁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며, 또 승리를 거둔 삶을 보여준다. 이 그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바람직한지, 또 이를 위해 치러야 할 희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시점에서 들여다보게 한다. 저자는 서양미술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리더십 주제의 그림들을 살펴보기를 권한다. 역사 속 위인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봄으로써 오랜 세월 사람들이 품어왔던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중요한 관념들을 깊이 통찰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 그림에서 오늘날 필요한 리더의 자질을 찾는 계기를 찾아보려는 저자의 의도를 보여준다. 저자는 그림 속 위인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일은 좋은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짚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좋은 리더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따뜻하게 감싸는 사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임을 생각하게 한다.



(재)부산문화회관, 상호협력을 통한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이 지난 3월 한 달간 (재)영화의전당을 시작으로 (사)부산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 (재)부산영어방송재단과 상호협력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박인건)은 지난 3월 7일 (재)영화의전당과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화융성을 위한 상호간의 홍보 및 마케팅과 관련한 협력과 지원을 협약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3월 21일에는 (재)부산문화회관과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부산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 (주)홈플러스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및 상호교류 등을 통해 문화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앞으로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기획 및 지원에 서로 힘쓰기로 협약했다. 또, (재)부산문화회관은 3월 22일 (재)부산영어방송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교류해나가기로 했다.



(재)부산문화회관 고객모니터링단 출범

지난달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SNS 서포터즈 출범에 이어 (재)부산문화회관의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재)부산문화회관 고객모니터링단이 3월 22일 출범했다.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객모니터링단은 부산문화와 (재)부산문화회관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직장인, 주부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공연관람 후 평가하는 공연 모니터링에서부터 관객서비스, 시설만족

도 등 (재)부산문화회관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고객모니터링단은 이날 발대식에서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5회 정기연주회 관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정기회원제도

그랜드자연요양병원, 혜화여고, 해강고 단체가입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가 그동안 다양한 할인혜택과 부대서비스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사랑받으면서 단체가입이 늘고 있다.

우선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그랜드자연요양병원(원장 이재임)이 병원가족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올해 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했다. 평소에도 그랜드 자연 정기음악회를 비롯해 야

외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병원 직원과 환자,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쳐오고 있는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하면서 직원복지를 위해 병원 가족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공연관람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 62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혜화여자고등학교(교장 류진숙)와 해운대 지역의 신흥 명문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강고등학교(교장 김봉련)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했다. 혜화여자고등학교와 해강고등학교는 이번 단체가입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예술체험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18 교향악축제 참가

4월 13일 오후 8:00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4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18 교향악축제'에 참가한다. 국내 최대의 클래식 축제인 '교향악축제'는 지난 1989년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첫 선을 보인 후 예술의전당을 대표하는 기획 음악회 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이번 교향악축제에서는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만국가교향악단(NSO) 등 총 19개 교향악단이 참가한 가운데 'Festival'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향연을

펼친다.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날 무대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지난해부터 선보이고 있는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네 번째 작품인 슈트라우스의 '가정 교향곡'을 비롯해 현대음악의 거장 리게티의 제자였던 작곡가 진은숙의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영망진창 티파티', 그리고 바로크의 흔적이 남아있는 하이든 초기의 대표작 '첼로 협주곡 제1번'을 차세대 첼리스트 심준호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세계적인 거장 나탈리아 구트만으로부터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연주하는 진정한 음악가'라는 극찬을 받은 첼리스트 심준호는 2010년 쥘레스 뮤지컬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을 차지하고 2012년 안토니오 야니그로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2위에 수상하는 등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교향악축제에 앞서 4월 11일 제539회 정기연주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부산관객과 먼저 만난다.

※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0명 선착순 초대권 증정 ▶ (재)부산문화회관 공연마케팅팀(607-6074~5)로 전화신청

부산시립예술단 4월 찾아가는 공연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만나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4월 한 달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과 만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 가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은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문화를 통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4월에는 3일 부산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펼쳐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행사를 시작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시민들과 만난다.

일정

- 4월 3일(화) 14:45 부산지방경찰청 대강당_교향악단 '부산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 4월 4일(수) 12:30 부산광역시청 로비_국악관현악단 '시청 로비 콘서트'
- 4월 6일(금) 11:00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_합창단 '제50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 4월 6일(금) 12:20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무대_소년소녀합창단 '2018 시민뜨락축제'
- 4월 14일(토) 09:00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_소년소녀합창단 '2018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걷기 한마당'
- 4월 19일(목) 10:00 부산민주공원_합창단 '제58주년 4·19혁명 기념식'
- 4월 20일(금) 10:50 일광초등학교_국악관현악단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
- 4월 20일(금) 12:20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무대_교향악단 '2018 시민뜨락축제'
- 4월 21일(토) 15:00 부산솔로몬 로파크 저스티스홀_합창단 '로파크 개관 1주년 및 제55회 법의 날 기념 열린음악회'
- 4월 24일(화) 14:00 금사동 캠퍼스 D 고촌홀_합창단 '문화향유 열린음악회'
- 4월 28일(토) 11:00 부산학생문화예술회관 야외공원_교향악단 '법의 날 기념공연'

2018년도 2분기 문화예술 아카데미 개강

차별화된 강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2018년도 2분기 강좌가 4월 2일부터 새롭게 펼쳐진다.

참신한 주제와 깊이 있는 신규 강좌

이번 인문학 강좌에서는 참신한 주제와 깊이 있는 내용으로 오직 부산문화회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강좌가 신설되면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미술사의 폭과 깊이에 있어 차별화된 강좌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Artistic Fantastic 미술사'의 장원 교수가 새롭게 진행하는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는 강사의 독자적인 연구를 통한 섬세한 결과물로, 톡톡 튀는 주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미술사에 대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매분기 열혈 수강생들을 늘려가고 있는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역시 1분기 '고전미술'에 이어 2분기 강좌에서는 '근대미술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미술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지난해 단기특강 '세계의 공연장'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공연 칼럼니스트 이상훈은 이번 강좌에서 '세계의 뮤지컬'이라는 매력적인 주제로 수강생들을 만난다. 올해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세계 4대 뮤지컬로 손꼽히는 '캣츠',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미스사이공'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뮤지컬과 제3세계 뮤지컬, 그리고 창작뮤지컬에 이르기까지 해외 현지에서 보고 느꼈던 감동을 그가 직접 수집한 귀중한 자료를 통해 생생히 전한다. 우선 2분기 강좌기간 동안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뮤지컬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강좌는 평일에 편성되어 있어 참여가 어려웠던 직장인들을 위해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인문학 강좌

매 분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존 인문학 강좌 역시 수강 열기가 뜨겁다. 고유의 넛지(nudge) 교육법으로 유명한 김은주 강사의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에서는 수강생들을 무궁무진한 드로잉의 세계로 안내함으로써 나만의 창조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입체적인 명강의 '유혁준의 음악이야기'도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의 능력을 120% 이끌어내는 명품 자료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새로운 음악이야기를 전한다. 사진작가 뿌리야 김과 함께하는 '하이 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에서는 화사한 봄과 싱그러움 초여름을 맞아 부산 곳곳, 이미지와 이야기가 공존하는 장소를 찾아 촬영을 떠나고 나만의 사진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촬영실기와 미학이론을 겸비한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한다.

부산문화회관만의 차별화된 실기강좌

수준높은 실력을 갖춘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실기강좌는 이번 강좌에서도 요일별, 시간대별로 다양한 강좌들이 마련되어 있다. 기존 강좌 외에도 한국무용 살풀이와 흥춤(입춤), 해금(초급)반이 새롭게 개설되어 수강생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오늘날의 트렌드에 맞춘 성인들을 위한 '프리미엄 발레'와 '라인댄스' 강좌가 눈길을 끈다. 스트레칭부터 발레동작 하나하나를 통해 바디라인을 잡아주는 발레에 이어 새롭게 신설된 라인댄스는 보통 빠르기의 음악으로 간단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어 몸매와 스트레스 해소에 관심 많은 현대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4월 2일부터 강좌 시작, 수강생 모집은 선착순 마감

2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는 4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수강생 모집은 3월 19일부터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강의 커리큘럼 및 강사 프로필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재)부산문화회관 전시교육팀(607-6061~3, www.bscc.or.kr)



2018년도 2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 2018.3.19(월) - 선착순 마감

문의 : 전시교육팀 051)607-6061~3 www.bscc.or.kr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인문학 · 교양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초급)	4.9 - 6.18	매주 월 (10회)	10:30-12:30	강의실	15	15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응용)	4.9 - 6.18	매주 월 (10회)	14:00-16:00	강의실	15	150,000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4.3 - 6.19	매주 화 (10회)	14:30-16:30	컨퍼런스홀	30	180,000
★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	4.12 - 6.14	매주 목 (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30	120,000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4.7 - 6.16	매주 토 (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30	12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포트폴리오)	4.7 - 6.16	매주 토 (10회)	10:00-12:00	강의실	20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초급)	4.7 - 6.16	매주 토 (10회)	15:00-17:00	강의실	20	120,000
실기 (음악 · 무용)						
프리미엄 발레	4.13 - 6.15	매주 금 (10회)	14:00-15:00	연습실	20	100,000
★ 라인댄스	4.12 - 6.14	매주 목 (10회)	13:00-14:00	연습실	20	100,000
한국무용 (기초)	4.4 - 6.20	매주 수 (10회)	14:00-15:10	연습실	20	100,000
★ 한국무용 (살풀이)	4.4 - 6.20	매주 수 (10회)	15:30-16:50	연습실	20	100,000
★ 한국무용 (흥춤(입춤))	4.3 - 6.19	매주 화 (10회)	15:30-16:50	연습실	20	100,000
바이올린 A	4.2 - 6.18	매주 월 (10회)	17:30-19:00	레슨실	12	120,000
바이올린 B	4.2 - 6.18	매주 월 (10회)	19:30-21:00	레슨실	12	120,000
가야금 (중급)	4.3 - 6.19	매주 화 (10회)	17:30-19:00	레슨실	12	140,000
가야금 (초급)	4.3 - 6.19	매주 화 (10회)	19:30-21:00	레슨실	12	140,000
사물놀이 (초급)	4.3 - 6.19	매주 화 (10회)	17:30-19:00	연습실	12	120,000
사물놀이 (중급)	4.3 - 6.19	매주 화 (10회)	19:30-21:00	연습실	12	120,000
클라리넷 A	4.4 - 6.20	매주 수 (10회)	17:30-19:00	레슨실	8	120,000
클라리넷 B	4.4 - 6.20	매주 수 (10회)	19:30-21:00	레슨실	8	120,000
★ 해금 (초급)	4.19 - 6.21	매주 목 (10회)	17:30-19:00	레슨실	12	120,000
해금 (중급)	4.19 - 6.21	매주 목 (10회)	17:30-19:00	레슨실	12	120,000
해금 (고급)	4.19 - 6.21	매주 목 (10회)	19:30-21:00	레슨실	12	120,000
클래식 기타 (중급)	4.13 - 6.15	매주 금 (10회)	14:00-15:30	레슨실	15	120,000
클래식 기타 (초급)	4.13 - 6.15	매주 금 (10회)	16:00-17:30	레슨실	15	120,000
★ 세계의 뮤지컬 (영국편)	4.7 / 4.14	매주 토 (2회)	11:00-13:00	컨퍼런스홀	50	40,000
★ 세계의 뮤지컬 (프랑스편)	6.30 / 7.7	매주 토 (2회)	11:00-13:00	컨퍼런스홀	50	40,000

★ 신규강좌 ※ 강좌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포터즈 공연을 이야기하다

권민

<https://blog.naver.com/cot2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7회 정기연주회 '천재의 고뇌와 모방' 공연을 관람했다. 혹여나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공연관람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음악적 견해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면 공연을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펙트럼은 다양하기에 그 순간을 즐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기연주회 첫 번째 곡으로 마주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은 내심 기대가 되었고, 피아니스트 박중화의 섬세한 연주가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다. 어느새 이 곡이 초연된 지도 15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고 한다. 작품에 대한 애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졌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으로 다가가서 아닐까 싶다. 또한, 이 곡의 가장 큰 주제는 향수인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이 곡에 담겨있는 것 같다. 감동의 연속 그리고 전율을 느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접하면서 본인이 낼 수 있는 소리와 표현으로 소통하고자 한다.

(재)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부산문화회관의 공연소식,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7회 정기연주회 천재의 고뇌와 모방

그동안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을 접하면서 감동과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2018년 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 모집 공고에 지원했고 서포터즈 일원으로 선정됐다. 2월 8일, 서포터즈 발대식을 마치고

박정림

<https://blog.naver.com/stitch6260>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영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본 적이 있는가. 주인공 제임스는 좋아하는 여성에게 다가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며 호감을 드러낸다. 아마 그 대사에는 '같이 공연 보러 가실래요?'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영화의 결말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번 공연이야말로 영화 속 제임스처럼 관심 있는 이성에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며 데이트 신청하기 좋은 공연이 아니었나 싶다. 지난 2월 25일, 피아니스트 변애영을 중심으로 유럽계의 거장 로랑 코르샤, 아르토 노라스, 피호영 등이 함께한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무대가 펼쳐졌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공연에는 브람스가 남몰래 흠모했던 여인이자 스승의 아내인 클라라 슈만의 곡과 더불어 브람스가 좋아한 여러 곡으로 구성되었다. 저마다 의미 있는 곡을 연주자의 섬세하고 화려한 테크닉으로 듣고 있지만 마치 곡 안에서 자유롭게 헤메치는 기분이었다. 곡에 흠뻑 취해있을 때쯤 흘러나온 카를 라이네케의 소나타 '운디네' 곡에서는 2악장에서 들었던 멜로디가 다시 4악장에 반복되었는데 같은 멜로디임에도 불구하고 구슬프게 느껴지는 건 왜였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물의 요정이라 불리는 운디네의 운명적 사랑 이야기가 내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아닐까 싶다.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어두운 밤하늘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은 느낌이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임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김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음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해빈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부산아트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이명아 르네상스피부와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충영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진경옥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현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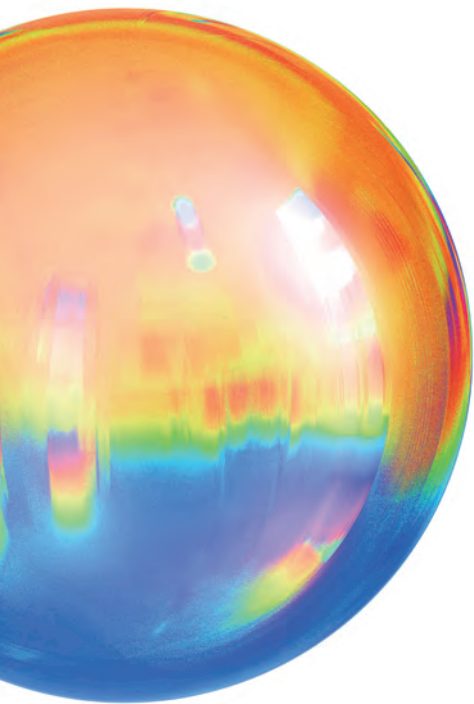
※ 2018년 3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8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럽 신인 오페라 갈라 콘서트 [종료]

2월 24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김리라, 임수연, 정한나, 테너 이명현, 이준범, 정필립, 바리톤 이규봉, 조병익, 베이스 김신호 등 지금 현재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인 성악가들의 무대.

유럽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종료]

2월 25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피아니스트 변애영을 비롯해 김가람,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피호영,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최주연, 플루티스트 필립 베르놀드, 이소영, 이주희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마련하는 실내악의 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시리즈

'거장, 거장을 만나다' [종료]

3월 14일(수)-15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곡 전곡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 연주 : 주희성, 파스칼 드브이옹, 노경원, 김영호, 이미주

최백호의 청춘 콘서트 [종료]

5월 12일(토) 14:00, 18: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세대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보이스, 이 시대 최고의 젊은 보컬리스트들이 함께 노래하고 싶어하는 가수 최백호의 특별한 무대.

(S석에 한해 1인 2매 예약가능, 각 공연당 50좌석 선착순)

이반 크르판 피아노 리사이틀 **예약중**

5월 20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2017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이반 크르판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사무엘 윤&손지혜 듀오콘서트

6월 1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의 주역가수 사무엘 윤과 오페라 무대의 차세대 디바 손지혜의 듀오무대.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회

6월 27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인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초청 무대.

카푸송&카메라타 잘츠부르크

10월 20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함께 하는 무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4~5)

VIP



해설 조윤범

마티네
조윤범과 함께하는 콘서트 시즌3

오페라 이야기 II

오전 11:00 2018. 4. 25 (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김봉미



소프라노 박현주



테너 조현광



바리톤 박대용



베이스 한혜열

Program 프로그램

G. Donizetti
도니체티
(1797 - 1848)

사랑의 묘약
Opera <L'ÖElisir d'Amore>

서곡
Overture
옛날에 파리스가 한 것처럼
Come Paride vezzoso

여러분 들어 보세요
Udite, Udite, O rustici

남몰래 흐르는 눈물
Una Furtiva Lagrima

이것을 받으세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Prendi, per me sei libero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Opera <Lucia di Lammermoor>

나의 한숨은 산들바람에
Verranno a te sull'aure

연회를 멈추시오
Ah cessate quel

광란의 아리아
Il dolce suono mi colpi di sua voce

[선착순 이벤트]
커피와 빵을
무료로 드립니다.

2017 / 18 NEW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BEETHOVEN SYMPHONY CYCLE CONCERT VII

베토벤 교향곡 제7번 Beethoven **Symphony No.7**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1번 Chopin **Piano Concerto No.1**
지휘 **금난새** Gum Nanse
피아노 **박진형** Jinhyung Park
연주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8. 4. 21. Sat. 17:00

티켓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예매 및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9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IV
The Richard Strauss Cycle IV - Complete Tone Poem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9회 정기연주회

일탈 혹은 일상

2018. 4. 11 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첼로 심준호

Program

진은숙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中 “영망진창 티 파티”
U.S.Chin | 'A Mad Tea Party' from "Alice in Wonderland"

하이든 | 첼로 협주곡 제1번
F.J.Haydn | Cello Concerto No.1 in C major, H.7b/1

슈트라우스 | 가정 교향곡
R.Strauss | Sinfonia Domestica, Op.53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서울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 (2회 운행)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6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홍희철 취임연주회

國樂

4월에 부르는 봄의 노래

국악관현악 [거동]

거문고 협주곡 [비상]

국악관현악 [서경별곡]

전통성악과 서양성악이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베를리오즈, 푸니쿨리 푸니쿨라, 박타령]

사물과 연희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



| 지휘 | 홍 희 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 요원 |



거문고
이대하



소프라노
박은주



소리
박성희



소리
정선희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연희
부산예술단



사물놀이
이주현, 전학수
최오성, 박재현

2018. 4. 26(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8

시민



BUSAN CITIZEN'S HALL
부산시민회관

노랑축제

매주 금요일 추억을
시민회관에서



누구나 즐기는 축제 (무료공연) *우천시 취소

일 시: 4월 6일(금) ~ 5월 11일(금)

매주 금요일 12시 20분 ~ 13시

장 소: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일 정	단체명	장르
4.06(금)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합창
	더블로섬	클래식
4.13(금)	4nowquartet	재즈
4.20(금)	부산시립교향악단-금관5중주	클래식
4.27(금)	이소정 - 경기민요	국악
5.04(금)	레이디굿맨	대중
5.11(금)	휴파페라	팝페라

“그때 우리는
함께 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최백호의 청춘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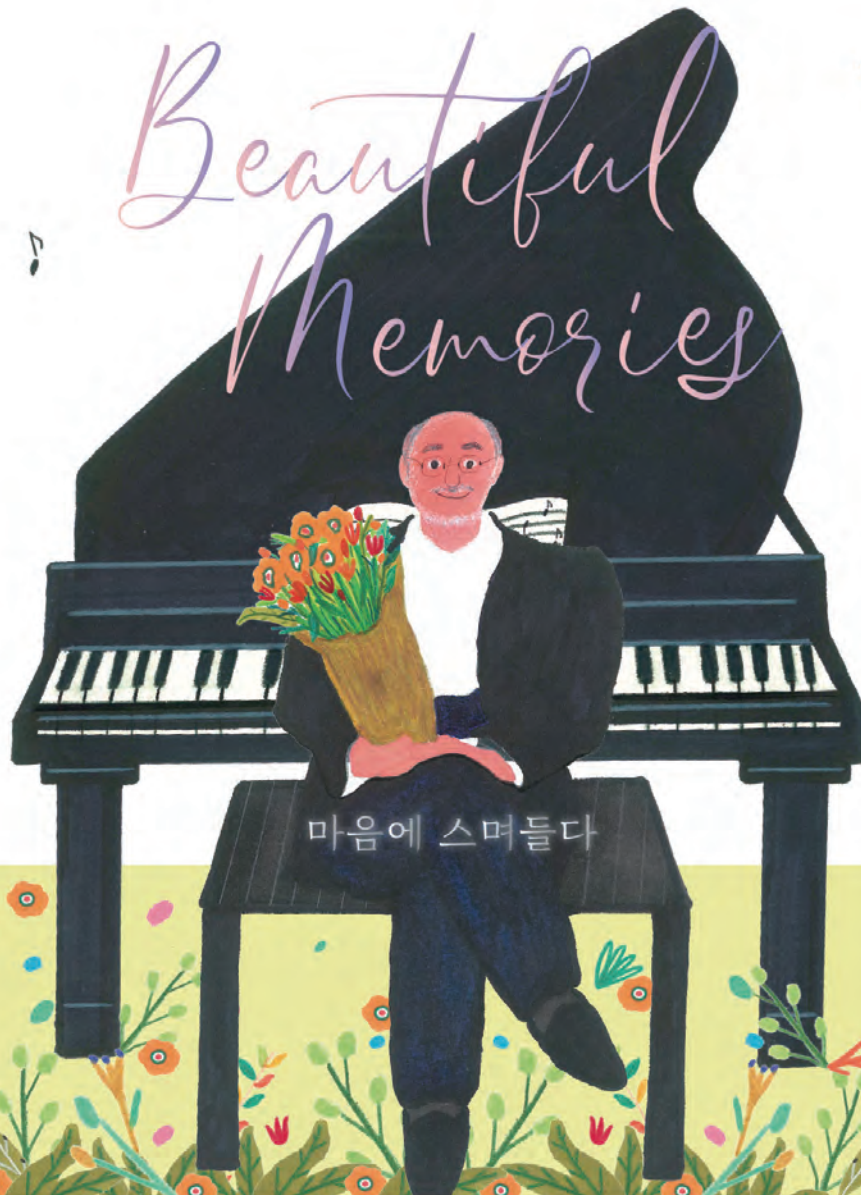
‘회귀: 回歸’ 2018. 5. 12 (토) 2시, 6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예매 | 인터파크 ·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 문의 | 051-630-5200

A석 30,000원 · S석 60,000원 · R석 90,000원 주최 · 주관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후원 | 가야고등학교총동창회

유키 구라모토

Beautiful
Memories



마음에 스며들다

2018.5.25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제작 **CREZIA**
INTERNATIONAL

티켓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예매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051-607-6000

 인터파크 티켓 1544-1555